문학석사학위논문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李 敏 (이 민)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어 초록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에 대한 연구

李 敏 (이 민)

본고에서는 구어체 종결 표현 '-을걸'의 실현 양상을 검토하여 '-을걸'의 문법적·화용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을걸'은 '추측'의 '-을걸$_1$', '-후회'의 '-을걸$_2$', '타박'의 '을걸$_3$'으로 나눠진다. '-을걸'은 기존 논의에서 추측 의미의 '-을걸$_1$'과 후회 의미의 '-을걸$_2$'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봐왔다. 그러나 필자가 구축한 말뭉치에서 '추측'도 '후회'도 아닌 '-을걸$_3$'을 발견하였고 이를 '타박'의 의미로 보았다. '-을걸$_3$'은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을걸$_1$' 및 '-을걸$_2$'와는 다른 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결어미로 쓰인 예문도 있어 '-을걸$_3$'으로 표시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방법과 대상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을걸$_1$'의 문법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을걸$_1$'은 모든 용언과 제약 없이 결합 할 수 있고, 인칭의 제약이나 부정문의 종류에도 제약이 없다. 또한 근대 한국어 자료를 검토하여 '-을걸$_1$'의 기원형식이 '-을 것을'임을 밝혔다. '-을걸$_1$'은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거나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 '-을걸$_1$'이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는 기타 추측 표현과의 변별적인 의미가 된다.

3장에서는 후회 의미의 '-을걸$_2$'를 검토하였다. '-을걸$_2$'는 기본적으로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몇 몇 화자가 통제 가능한 심리 형용사와 결합 가능하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뜻하므로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후회'의 의미를 갖는 '-을걸$_2$'는 '-었-'과 통합할 수 없다. '-을걸$_2$'는 '-을 것을'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듯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랬다, 그랬네, 그랬나, 그랬나 보다, 그랬죠' 등과 같은 표현이 뒤따르는 일이 흔하다. '후회'의 의미 특성상 '-을걸$_2$'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어야 할 것이나 주어가 2인칭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을걸$_2$'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그랬다, 그랬죠' 등을 동반해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필자는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 대신 '후회'를 하면서 그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문법화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후, '-을걸$_3$'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을걸$_3$'은 아직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을걸$_3$'의 기본 억양이 '-을걸$_1$' 및 '-을걸$_2$'와는 다르고, '타박'의 의미로 통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을걸$_1$' 및 '-을걸$_2$'와는 구별하여 '-을걸$_3$'으로 보았다. '-을걸$_3$'은 많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었-'과 결합할 수 없으며 부정문을 가지지 않으며 '요'와도 결합할 수 없다. '-을걸$_3$'은 조건절에 많이 쓰이며 주어는 항상 2·3인칭이고, '-을 것을'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가지고, 가지고 그러네'와 같은 표현이 뒤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5장에서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을 검토하여 '-을걸$_1$'과 '-을걸$_2$'가 혼재해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었-'과의 통합가능성이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을걸', 구어, 종결 표현, 후회, 추측, 타박.
학　번: 2009-23813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 례

한국어 초록 i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 4

2. 추측 의미의 '-을걸$_1$' **7**

2.1. '-을걸$_1$'의 문법적 특성 7

2.2. '-을걸$_1$'의 화용적 특성 16

3. 후회 의미의 '-을걸$_2$' **22**

3.1. '-을걸$_2$'의 문법적 특성 22

3.2. '-을걸$_2$'의 화용적 특성 30

4. 타박 의미의 '-을걸$_3$' **35**

4.1. 문법화의 개념 35

4.2. '-을걸$_3$'의 특성 39

5.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 **47**

6. 결론 53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57

부 록 ···62

中文摘要 ···7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구어 말뭉치에서 종결어미 '-을걸'[1]의 실현 양상을 검토하여 '-을걸'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걸'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결어미를 다루는 자리에서 여타 종결어미와 함께 다루어진 논의가 대부분이며, '-을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논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을걸'만을 대상으로 '-을걸'의 여러 특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미시적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어 종결어미의 거시적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결어미 '-을걸'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추측 의미의 '-을걸'과 후회 의미의 '-을걸'은 서로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들을 동음이의(homonymy)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측 의미의 '-을걸'을 '-을걸$_1$', 후회 의미의 '-을걸'을 '-을걸$_2$'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을걸$_1$'과 '-을걸$_2$'의 의미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이들은 절 접속의 기능을 하던 '-을 것을'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단지 현대 한국어의 언어 현실로 보았을 때 '-을걸$_1$'과 '-을걸$_2$'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을걸$_1$' 및 '-을걸$_2$'와는 다른,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타박[2]의 의미를 갖는 '-을걸'을 찾아내었다.

1) '-을걸'은 'ㄹ' 이외의 자음 뒤에 나타나고 '-ㄹ걸'은 'ㄹ'이나 모음 뒤에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을걸'을 대표이형태로 삼는다.

2) '타박'은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함(≪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갖는다. 필자가 이러한 뜻으로 풀어서 사용한 것을 보고 발표의 자리에서 '타박'이라는 명칭을 제안해 주신 김창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러한 '-을걸'은 아직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종결어미화[3]되어 가고 있어 종결어미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을걸$_1$' 및 '-을걸$_2$'와는 다른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걸$_3$'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본고의 제목에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을걸$_3$'이 아직 완전히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1.2. 선행 연구

'-을걸'은 종결어미를 연구하는 논의에서 기타 종결어미와 함께 언급되어 왔으며 '-을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강현화(2008a)과 최동주(2008)에서 '-을걸'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강현화(2008a)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의 관점에서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걸$_2$'을 다루었다. 강현화(2008a)에서는 '-을걸$_2$'가 실제 언어수행에서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는지 고찰한 뒤, 기타 후회 표현과 함께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ㄴ걸'과 '-ㄹ걸'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한 예로, 이 논문에서는 '-을걸$_1$'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본 것에 근거하여 이를 감탄할 때 쓰인다고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 가. 어제 캐나다 팀 잘 싸우던걸! / 한국 팀 잘했는걸!
　　나. 야, 한국 팀 정말 잘 하는걸! (강현화 2008a: 55)

예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제로 경험하거나 본 것'의 의미, 즉 '기정'의

3) 김태엽(2001: 96)에서는 "마침법을 실현하지 않던 어말어미가 그 문법 기능이 전용되어 마침법을 실현하게 되는 현상"을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불렀다. '종결어미화'는 '문법화'란 큰 개념 아래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고, 문법화의 결과로 종결어미가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종결어미화'를 사용하도록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미는 '-ㄴ걸'의 '-ㄴ'에 의해 도출된 의미이지 '-ㄹ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ㄴ걸'과 'ㄹ걸'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ㄴ걸'과 '-ㄹ걸'의 구분이 필요하다.

최동주(2008)에서는 한국어학의 관점에서 추측의 '-을걸'과 후회의 '-을걸'의 특성을 아울러 다루면서, 추측 의미의 '-을걸'이 '-을 걸세'를 기원 형식으로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 추측 의미의 '-을걸'이 '-을 것을'을 기원 형식으로 한다는 논의와 의견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루기로 한다.

한편, '-을걸'을 다른 형식들과 함께 다룬 논의들로는 고영근(1989), 한길(1991), 허웅(1995), 이해영(1996), 안주호(1997), 이희자·이종희(1999), 이윤진·노지니(2003), 박재연(1998, 2006), 이효정(2004), 이종은(2005), 허경행(2005), 권영은(2008), 성미선(2009) 등이 있다.

'-을걸$_1$'의 기능을 '불확실한 추측' 또는 '개연성'으로 보고, '-을걸$_2$'의 기능을 '후회'나 '아쉬움'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큰 견해 차이가 없다.

또한, '-을걸'의 기원형식에 대하여 '후회'나 '아쉬움'을 뜻하는 '-을걸$_2$'가 '-ㄹ+것+을(목적격조사)'구성에서 문법화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는 데에도 큰 견해 차이가 없다.

'불확실한 추측' 또는 '개연성'의 '-을걸$_1$'의 기원 형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추측'의 '-을걸$_1$' 역시 '후회'의 '-을걸$_2$'과 마찬가지로 '-ㄹ+것+을' 구성에서 문법화하여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로, 고영근(1989), 한길(1991), 박재연(1998), 이윤진·노지니(2003), 허경행(2005), 권영은(2008)[4]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최동주(2008)에서 주장한 바인데, '추측'의 '-을걸'은 '-ㄹ걸세(<-ㄹ+것이+ㄹ세)'의 '-세'가 절단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동주(2008)에서는 '-을걸'의 '추측'의 의미는 '-ㄹ 것이'에서

4) 권영은(2008: 70-71)에서는 '-을걸'이 '-ㄹ 것을'에서 '복합종결어미'가 되었다고 하고, 각주 45)에서 '본고에서는 추측뿐만 아니라 의지를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가 '-(으)ㄹ걸'이 되어서는 불확실한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다'고 밝힘으로써, '-ㄹ 것이다'와도 관련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온 것이며,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는 '-ㄹ세'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중 대부분의 논의는 '불확실한 추측/개연성'의 '-을걸$_1$'과 '후회/아쉬움'을 뜻하는 '-을걸$_2$'를 다의적인 관계로 간주하였다. 한편 양자를 동음이의적 관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논의로는 이희자·이종희(1999), 강현화(2008a), 최동주(2008) 등이 있다.[5]

1.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

'-을걸'은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어미로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통해 '-을걸'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을걸'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기원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 근대 한국어 자료는 Uniconc 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예문을 검색하였다.

본고에서 현대 한국어의 예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세종말뭉치 중 구어 말뭉치와 필자가 구축한 준구어 말뭉치이다. 세종말뭉치의 구어 말뭉치는 총 30만 어절로 대화와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자가 구축한 준구어 말뭉치는 총 7,454회에 해당되는 영화 및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되었다. 규모는 약 24,260,020 어절이다.

본고에서는 양적으로 많이 확보된 영화·드라마 대본인 준구어 말뭉치를 위주로 이용하였다. 권재일(2003)은 연극, 영화, 방송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는 말해지기 위해 쓰인 자료로 이들도 구어 자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필자도 준구어 자료가 실제 구어 자료는 아니지만 현실을 재연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준구어 자료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5) 강현화(2008a: 51)에서는 '추측과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은 의미상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여 설명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양자 사이의 '의미상의 연관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준구어 말뭉치는 다음과 같은 효용성이 있다.

첫째, 일상적 대화 말뭉치는 생략, 도치와 같은 구어적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연구 대상이 되는 문형을 찾아내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준구어 자료를 통해 대화의 전형적(typical)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대사의 작성에 있어 실제 대화의 형태로 기술하면서도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형적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대본의 특성상 대사에 앞서 괄호나 지문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발화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본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상황이나 장면이 반영되어 있어 대인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기능을 살피는 데에 적절하다(강현화 2008a).

하지만 준구어 말뭉치는 구어 대화 말뭉치에 비해 실제성의 정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작가의 개인 방언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말뭉치의 일반 구어 말뭉치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세종 말뭉치의 일반 구어 말뭉치의 양이 적어 영화·드라마 대본의 준구어 말뭉치가 연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본고의 논의 중심인 '-을걸'은 방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 준구어 말뭉치로 사용한 영화·드라마 대본 목록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추측 의미의 '-을걸$_1$'의 제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논의에서 일치를 보지 못한 기원형식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을걸$_1$'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후회 의미의 '-을걸$_2$'의 제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을걸$_2$'의 기원 형식 및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을걸$_3$'의 문법적 특성 및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문법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을걸$_3$'의 문법적 특성 및 화용적 특성을 바탕으로 '-을걸$_3$'이 종결어미로 문법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되어 가고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

5장에서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나타나는 '-을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을걸'의 한 종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나타나는 '-을걸'을 '-을걸$_1$'로 보기도 하고 '-을걸$_2$'로 보기도 하였기에 한 장을 마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5장에서는 먼저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의 '-을걸'의 특성을 고찰하여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을걸'에 '-을걸$_1$'과 '-을걸$_2$'가 혼재해 있음을 밝힌다. 즉,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쓰이는 '-을걸'은 '-을걸$_1$'도 있고 '-을걸$_2$'도 있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었-'과의 통합여부로 판별할 수 있음을 밝히도록 한다.

6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 추측 의미의 '-을걸$_1$'

2.1. '-을걸$_1$'의 문법적 특성

본 절에서는 먼저 '-을걸$_1$'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기원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을걸$_1$'은 동사, 형용사 및 '이다' 등 모든 용언과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의 예이다. (2가)에서는 동사와, (2나)에서는 형용사와, (2다)에서는 '이다'와 결합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2) 가. 경진: 봐봐. 이렇게 넓고 자유롭고 멋진 공간은 절대로 못 찾을걸. 학교도 가깝지. 여기 싱크대에 물도 나오지. 바로 저 문밖에 화장실도 있지. 그리고.. <카이스트, 49회>

나. 대욱: 어때 뭐 불편한 거 없지? 편하지? 거의 완벽할걸. 왜냐. 내가 지난 6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조사, 기술조사, 사용자 조사 다 해서 만들어낸거니까. <카이스트, 47회>

다. 경진: 이게 뭐야?
정태: 몰라도 돼.
민재: 내가 좀 알지. 정태의 작품일걸.
정태: 아 조용히 해. <카이스트, 47회>

'-을걸$_1$'은 과거,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에 제약 없이 쓰인다. (3가)에서는 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 (3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 (3다)에서는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3) 가. 진수: (기분이 안좋아서)누구에요? 도대체 경우라는 게 없는 분이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남희: 경우가 없는 게 아니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지. 지금 박사 오년차인데 학부도 5년씩 다녔고. 석사도 남들보다 일년 늦었을걸. 학부땐 전산과였는데 나중에 전자과로 옮겼다든가... <카이스트, 42회>

나. 종남: 어머니 아직 안 오세요?

석현: 지금쯤 거의 오셨을걸. <별여별남, 167회>

다. 승희: (하하 웃는다)그 자식, 지금 어디서 뭘하는지 몰라두...

복실: 걔요?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저번에 엽서 한 번 왔는데, 요번 연말에 제대할걸요? 참, 걔 국문과 다니는데요, 개두 영화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3회>

'-을걸$_1$'은 선어말 어미 '-었-', '-으시-'와 결합할 수 있다. (3가)를 변형시켜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4) 가. 석사도 남들보다 일년 늦었을걸.

나. 석사도 남들보다 일년 늦으셨을걸.

'-을걸$_1$'은 부정문 종류에 제약이 없다.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모두 가능하며 단형 부정 및 장형 부정도 가능하다. (5가, 나)에서는 '안' 부정문의 예를 보인 것이고, (6가, 나)에서는 '못' 부정문의 예를 보인 것이다.

(5) 가. 성식: ...아, 이거 다 끝난줄 알았더니..

유리: 괜찮을거야,미스터 쩨즌. 우충섭이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을걸? <승부사>

나. 덕배: (그새 또 잔머리 굴려서)아, 다음 주에 신입사원 댓명 들어올 건데..

보험: (놀라) 예? (머뭇거리면)

덕배: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애들이라 보험도 안 들었을걸요. <코끼리, 61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6) 가. 철 진: 와! 그럼 나두 얼굴 볼 수 있겠네.
석 진: 너 학교에서 올 때까지 못 기다릴걸.
철 진: 무슨 소리야? 형수 얼굴을 동생이 봐야지. 조퇴하고 오면 돼.
석 진: (웃음 띤 채) 그러지마.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화려한 시절, 11회>

나. 파랑: 봐, 우리 변호사 아저씨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이렇게 비싼데도 데려오는 거야. 팀장 아저씨는 이런 데 데려오지 못할걸. <별을 따다줘, 9회>

'-을걸$_1$'은 대화에서도 쓰이고 혼잣말에서도 쓰인다. 대화에서 청자를 높여줘야 할 경우 '-을걸$_1$' 뒤에 '요'를 붙인다. '요'가 통합되면 들을이높임의 정도가 '안높임'에서 '높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을걸$_1$'은 반말체(해체) 종결어미에 속한다(한길 1991:151).[6]

(7) 박교수: 그래서 나온 말이 모난 정이 돌맞는다.. 이거잖아.
정태: 모난 돌이 정을 맞을걸요.
박교수: 그렇지. 그래서 우리 나라에 천재도 없고. 영웅도 없는거야. 내 말 맞지? <카이스트, 6회>

'-을걸$_1$'은 추측의 의미를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2·3인칭 주어에 쓰이며 화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의미적으로 그럴 뿐 '-을걸$_1$'에 인칭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추측이란 상대편이나 제3자에 대해 할 수도 있으며 화자 본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말뭉치는 대화체로 구성됐기 때문에 2인칭이지만 주어가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은 말뭉치 중 주어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만 가져온 것이다.

---

6) 한편 고영근(1989: 277, 280)에서는 하게체로 간주한 바 있다. 하게체의 직설법에서는 '-(으)ㄴ걸 (그래)', 회상법에서는 '-던걸(그래)', 추측법에서는 '-(으)ㄹ껄 (그래)'가 쓰인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1인칭

(8) 가. 다현: 글쎄요. 신문에는 주희씨보다 내가 먼저 났을걸요. <1프로의 어떤것, 14회>

나. 옥자: 오늘 시합을 한 팀들 결과가 벌써 여기 뜬 단 말이지.

희애: 아마 오늘 우리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을걸. 엄마 오늘 우리 10점 만점에 9점 받았잖아요. <맛있는 청혼, 10회>

• 2인칭

(9) 가. 보영: 여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족속들이야. 이기적이라구 이번 일에서도 너만 다칠걸? <스타의연인, 11회>

나. 선화: (웃으며 고개 젓는다) 너희는 상상도 못 할걸. <사랑해 당신을, 9회>

• 3인칭

(10) 가. 동주모: (묘한 미소)...할아버지가 니 아버지 호출 하셨을 걸? <파라다이스, 7회>

나. 해 진: 감독이 지치면 안되잖아요. 감독이 젤 힘든데..체력 관리 잘 하는 거 아닌가?

수 경: 애가 애가 미치셨네, 미치셨어. 너, 나쁜 놈한테 끌리는 병 있지?

해 진: (웃으며) 여자들 다 그럴걸요.

수 경: 니가 여자냐, 애지. ... <그들이 사는 세상, 4회>

(8가, 9가, 10가)에서는 주어가 단수인 경우를 제시하였고, (8나, 9나, 10나)에서는 주어가 복수인 경우를 제시하였다.

앞서 예문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을걸$_1$'은 형용사, 동사, '이다', '하다' 뒤에 제약 없이 붙는다. 그러나 구어에 쓰이다 보면 '명사+-이-+-을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구성에서 '이-'가 자주 생략되어 '명사+-을걸'구성으로 나타난다. '-하-' 또한 생략되어 나타난다.

(11) 가. 정길: ....(한숨) 말은 안 해도 니 엄마보다, 니 할아버지가 더 반댈걸?? <그대웃어요, 32회>

나. 을동:어제 월도가 두고 간 거야. 사과주슬걸? <김치·치즈·스마일, 103회>

다. 금자: (못 박듯이) 거기다 공증하러 가자니까 차일피일 미루더니, 세금 어쩌구 하더라구. 흥! 내가 그 속 모르나? 분명히 봐봐. 조만간 떡볶이 가게 달랄걸??

상훈: 아무리... <그대 웃어요, 17회>

(11가)에서는 '반대일걸'의 '-이-'가 생략되어 '반댈걸'로 나타난 것이고 (11나)는 '사과주스일걸'에서 '이'가 생략되어 '사과주슬걸'로 나타난 것이며, (11다)에서는 '달라고 할걸/달라할걸'에서 '-고 하-/-하-'가 생략되어 '달랄걸'로 나타난 것이다.

'-을걸$_1$'은 모두 '-을 것을'로 복원 불가능하다. 한길(1991)에서 언급했다시피 추측의 '-을걸'은 모두 '-을 것을'로 복원 불가능한 반면, 후회의 '-을걸'은 '-을 것을'로 복원가능하다.

(12) 가. 간호: 응급실에 계실걸요? <그대 웃어요, 1회>

가'. *간호: 응급실에 계실 것을요?

나. 가자 할 때 갈걸.

나'. 가자 할 때 갈 것을 (그랬어).

위 예문 (12가, 가')에서는 추측의 '-을걸$_1$'이 '-을 것을'로 복원 불가능한 것을 보인 것이고 (12나, 나')에서는 후회의 '-을걸$_2$'가 '-을 것을'로 복원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다음 '-을걸$_1$'의 기원 형식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대부분 논의에서는 '-을걸$_1$'의 기원 형식을 '-을 것을'로 보고 있다. 한편 최동주(2008)에서는 '-을걸$_1$'을 '-을걸세'의 '세'가 절단되어 '-을걸$_1$'이 되었다고 하였다.

(13) 가. 재물을 탕진하는 재미로 외로움을 잊을 걸세.
　　나. 금년 9월쯤이면 자네 집에 큰 경사가 있을 걸세.(최동주 2008: 234)

위의 예문의 '-을 걸세'를 '-을걸'로 바꾸어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최동주(2008)에서는 '-을걸'과 '-을 걸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을걸$_1$'의 기원 형식을 이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을 걸세'와 '-을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을 걸세'가 줄어서 '-을걸$_1$'이 되었거나, 아니면 '-을걸$_1$'에 하게체 종결어미 '-을세'가 결합하여 '-을 걸세'가 생겨났을 것인데 후자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자로 본다고 하였다. 즉 '-을걸$_1$'은 '-을 것일세(을 것이+을세)'가 줄어든 '-을 걸세'에서 '세'가 절단되어 생겨난 종결어미로 보았다. '-을걸$_1$'의 '추측'의 의미는 '-을 것이-'에서 온 것이며,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는 '-을세'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또한 본래의 서술형 종결형식이 절단됨으로써 '확실성', 혹은 '단정'의 의미가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를 뜻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을걸$_1$'이 '-을걸세'에서 왔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을걸$_1$'과 '-을걸세'가 큰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표현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의 기원 형식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을걸세'는 '-을걸$_1$'로 바꾸어 쓰는 것보다 '-을거야, -을거다' 등 형식으로 바꾸어쓰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을거야(-을 것이야), -을거다(-을 것이다)'의 기원 형식을 '-을걸세'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아래 (14)를 보면 알수 있다.

(14) 가. 재물을 탕진하는 재미로 외로움을 잊을 거야(잊을 거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 금년 9월쯤이면 자네 집에 큰 경사가 <u>있을 거야(있을 거다)</u>.

(14)에서 우리는 '-을걸세'가 '-을걸$_1$'보다는 '-을 거야, 을 거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의미상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또한 (15)에서의 '-을걸세'는 '-을걸$_1$'로 바꾸어쓸 수 없지만 '-을거야'나 '-을거다'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가. 내가 자네 은혜를 꼭 <u>기억할걸세</u>.
가'. *내가 자네 은혜를 꼭 <u>기억할걸.</u>
가''. 내가 자네 은혜를 꼭 <u>기억할거야</u>.
나. 한두달도 아니고 오년씩이나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말아먹은 그놈, 내 절대로 용서 <u>안할걸세</u>. <인생화보, 20회>
나'. *내 절대로 용서 <u>안할걸.</u>
나''. 내 절대로 용서 <u>안할거야</u>.

'-을걸$_1$'의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는 '-을세'에서 온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는 다음의 2.2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을걸$_1$'의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는 '-을걸$_1$'의 기본 의미가 아니며, 상대편의 발화에 대해 화자가 부정을 했다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논의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을걸$_1$'의 기원 형식을 '-을 것을'로 보고자 한다. 근대 한국어 자료에는 '-을 것을'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16) 가. 마ᄌᆞᆷ 그 형이 역질 피접가니 잇ᄡᅥ니 본집의 편지ᄅᆞᆯ ᄒᆞ야시되 당초의 쇼독ᄒᆞᄂᆞᆫ 약을 ᄡᅳ던들 이러티 아니<u>ᄒᆞᆯ 거ᄉᆞᆯ</u> 뎌즈음ᄢᅴ 셜샤ᄒᆞᆯ ᄶᆡ예 보원탕을 ᄡᅳ니 반ᄃᆞ시 조열ᄒᆞᆫ 연괴라 ᄒᆞ야시매 의논괴 소견이 달라 약을 못 ᄡᅥᆺ더니 <16**, 두창경험방, 45a>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 출히 제 도망이나 ᄒᆞ여 나가던들 이리 잔잉ᄒᆞᆫ ᄆᆞ음이나 업ᄉᆞᆯ 거ᄉᆞᆯ 앏픠셔 그ᄅᆞᆫ 일 업시 ᄃᆞ니다가 주그니<16**, 현풍곽씨언간, 143-8>

다. 사ᄅᆞᆷ 급히 가 보니 오히려 죽디 아녀 웃고 닐오ᄃᆡ 내 일즉 글을 닑으ᄃᆡ 그 ᄠᅳᆺ을 몰랏도다 녯 말의 ᄒᆞ여시ᄃᆡ 칼ᄂᆞᆯ히 업듸여야 죽ᄂᆞᆫ다 ᄒᆞ여시니 업듸면 오장이 샹ᄒᆞ여 죽을 거ᄉᆞᆯ 누어셔 지ᄅᆞ기의 죽디 아녓노라 ᄒᆞ더라 <163*, 산성일기, 112>

라. ᄋᆞ히 일흔 사ᄅᆞᆷ들은 동셔남북셔 즁에 그 관할된 경무셔에 말ᄒᆞ면 찻기가 어렵지 안ᄒᆞᆯ 거ᄉᆞᆯ 길에셔 불으기만 말지어다 <1896독립신문>

마. 샹업으로 말ᄒᆞᆯ진ᄃᆡ 됴ᄒᆞᆫ 물픔 져츅ᄒᆞ고 졍셩잇고 밋게ᄒᆞ면 ᄆᆡ매 졀노 셩ᄒᆞᆯ 거ᄉᆞᆯ 엇던 샹민 볼작시면 가로샹에 늘어서셔 사가시오 사가시오 내 물건을 사가시오 타인의게 넘어갈가 유공불급 ᄒᆞ지마ᄂᆞᆫ 그 경징도 쓸ᄃᆡ업고<1904, 대한매일신보>

바. ᄂᆡ 그ᄣᆡ 궐ᄂᆡ ᄉᆞ셰와 셰손 예의ᄅᆞᆯ ᄀᆡ별ᄒᆞ야 이 ᄠᅳᆺ을 아라 두게 ᄒᆞ더면 듕부가 예의 그러ᄒᆞ신 줄 알고 그 실언도 아니ᄒᆞ야실 거ᄉᆞᆯ ᄂᆡ 변통 업ᄂᆞᆫ ᄆᆞ음은 어ᄃᆡ 갈 거시라 이리ᄒᆞ랴 집안의도 ᄀᆡ별ᄒᆞ기 겸연ᄒᆞᆫ 듯 번거ᄒᆞᆫ 듯 미리 ᄀᆡ별치 아니ᄒᆞ고 <18**, 한즁록, 432>

사. 우연히 ᄆᆞᆯ이 졀각(絶脚)되매 ᄒᆞ로 지체후 경셩을 ᄃᆞ다르니 여러 교우ㅣ 셩문에 나와 닐ᄋᆞᄃᆡ 네 쥬인 죠슈욱의 혼솔은 어졔 잡혓다 ᄒᆞ니 만일 ᄀᆡ약대로 왓더면 물건과 편지가 다 쟝물될 ᄲᆞᆫ 외에 ᄒᆞᆫ 가지로 잡힐 거ᄉᆞᆯ 일이 이러케 되기는 텬쥬의 도으심이 아니면 무어시리오 <1907, 경향보감>

(16가~바)에서 '-을 것을'은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 또한 아래 (17가, 나)에서는 '-을 것을'이 '-었-'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 가. 대한에 리로ᄋᆞᆯ 말은 ᄂᆡ지말고 외국에 리로ᄋᆞᆯ 말만 ᄯᅡ라가며 ᄂᆡ엿ᄉᆞᆯ 것 ᄀᆞᆺ흐면 우리도 됴ᄒᆞᆫ 사ᄅᆞᆷ이라고 도아 주려고 ᄒᆞᄂᆞᆫ 친구로 잇셔ᄉᆞᆯ 거ᄉᆞᆯ 그 럿치 안코 대한 ᄐᆡ극국긔를 열심으로 보호ᄒᆞ야 이런 크게 관계되ᄂᆞᆫ 쇼문을 탐지ᄒᆞ여 다가 우리 동포를 알녀가지고 ᄂᆞᆷ의일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을 방해롭게 ᄒᆞ니 <1898, 매일신문>

나. 하ᄂᆞ님의 ᄉᆞ랑으로 눈물을 ᄂᆡ게 되엿스며 ᄯᅩᄒᆞᆫ 쟝로ᄉᆞᄭᅴ셔 ᄌᆡ작년 귀국ᄒᆞ셧슬 ᄯᅢ에나 혹 집에셔 부모처ᄌᆞ가 ᄒᆞᆷᄭᅴ 모혀 편안히 계시다가 무ᄉᆞᆷ ᄌᆡ앙을 당ᄒᆞ엿던지 혹 병이 들어 도라가셧던들 이러틋 특별ᄒᆞᆫ 증거가 못되엿슬 거슬 다ᄒᆡᆼ히 거륵ᄒᆞᆫ 심부름으로 셩경 번역ᄒᆞ기 위ᄒᆞ야 대희풍랑을 평디ᄀᆞᆺ치 알고 <1902, 신학월보>

아래 예문 (18)에서는 '-을 것을'에 '-이요'가 결합한 것으로 '-을 것을'이 문말에 쓰여 종결어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18) 남) 우리 나라헤 원통ᄒᆞᆫ 일 여러 가지 즁에 더 ᄒᆞᆫ 가지 원통ᄒᆞᆫ 일이 잇스니 지금 예수를 밋는 사ᄅᆞᆷ이 만하져셔 예수교회의셔도 예수를 밋고 뎐쥬교회의셔도 예수를 밋으나 그 두 교가 서로 원슈가 되는 것 ᄀᆞᆺᄒᆞᆫ즉 ᄆᆡ우 원통ᄒᆞᆫ 일이여요

박) 그러치오 과연 원통ᄒᆞ지오마는 엇지 달니 ᄒᆞᆯ 수가 잇나요

남) 예수교도 됴코 뎐쥬교도 됴ᄒᆞᆫ즉 서로 화목을 잘ᄒᆞ면 힘이 대단ᄒᆞᆯ 것슬이요

박) 힘이 만ᄒᆞᆫ 것을 데일 샹관ᄒᆞᆯ 것도 아니오 그 교의 됴ᄒᆞᆫ 것만 ᄯᅩᄒᆞᆫ 샹관ᄒᆞᆯ 것도 아니지오 당신 말ᄉᆞᆷ은 예수교도 됴코 뎐쥬교도 됴타 ᄒᆞ시나 다른 사ᄅᆞᆷ은 달니 ᄉᆡᆼ각ᄒᆞ여 아모 교가 됴코 다른 교는 됴치 못ᄒᆞ다 ᄒᆞ고도 ᄒᆞ고 혹은 이 셰샹 모든 교즁에 ᄆᆞ음대로 아모 교나 봉ᄒᆡᆼᄒᆞ여도 큰 샹관이 업다 ᄒᆞ나 과연 그러ᄒᆞᆯ 수 업지오

남) 그러면 엇더ᄒᆞᆫ가요 <1910, 경향보감>

또한,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을 걸'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것을 (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쟝ᄉᆞ 두목이 쥬ᄅᆞᆯ 쳥ᄒᆞ야 그 물건을 사라 할 ᄶᅦ 쥬ᄭᅴ셔 져ᄅᆞᆯ 즐겨 공경ᄒᆞ면 제가 조화ᄒᆞᆯ 걸 쥬ᄭᅴ셔 존귀ᄒᆞᆫ 것만 슝샹ᄒᆞ시매 살단이 쥬ᄅᆞᆯ 모시고 ᄒᆞᆫ 거리ᄅᆞᆯ 지나고 ᄯᅩ ᄒᆞᆫ 거리ᄅᆞᆯ 지나셔 일만 나라의 영화ᄅᆞᆯ 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구경 식히ᄂᆞᆫ 거ᄉᆞᆫ 쥬롤 ᄲᅬ야 그 물건을 사게 ᄒᆞᆷ이나 쥬ᄭᅴ셔ᄂᆞᆫ 그런 거ᄉᆞᆫ 도모지 조화ᄒᆞ지 아니ᄒᆞ시매 <1894, 텬로력뎡, 107b>

위에서 우리는 예문(16)~(19)을 통해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을 것을'이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문말에 위치하여 '-이요'와 결합할 수 있으며, '-었-'과도 결합 가능하는 '-을걸$_1$'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을 걸' 또한 절 접속의 기능을 하면서 '추측'의 의미로 쓰여 '-을 것을'과 '-을걸' 및 '-을걸$_1$'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걸$_1$'이 본디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을 것을'이 기능 전용되어 종결어미로 쓰이게 되었으며, 축약을 일으켜 '-을걸$_1$'이 되었다고 본다.

2.2. '-을걸$_1$'의 화용적 특성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추측'의 의미를 갖는 '-을걸$_1$'에 대한 풀이를 옮긴 것이다.

(20) -을걸「어미」

「1」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처럼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걸}./아마 지금쯤 동생은 제 방에서 빵을 {먹을걸}./그렇게 서두르다가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낚을걸}./그 집은 마당이 너무 {좁을걸}./내년이면 {늦을걸}./생각만큼 쉽지 {않을걸}.

기존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러한 풀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을걸$_1$'을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른' 경우에 쓰인다고 파악해 왔다.[7] (21)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채영: 너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지?
민재: 니가 나하구 같은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채영: 저 사람 그날 우리 동아리 방 나가면서 분명히 그랬어.
민재: (목소리 흉내내어)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밀이라면 좀 더 잘 지켜야 될걸.(실제: 잘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
채영: (역시 흉내내어) 모니터만 막아선다구 되는게 아닐걸.
민재: 그럼 전산 동아리들을 전멸시킨 해커는?
채영: 그렇지만... 설마 교수님이 그랬을까.. <카이스트, 2회>

그러나 '-을걸$_1$'은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단순한 추측일 때에도 쓰일 수 있다. 즉, 화자가 발화함에 있어서 상대편의 기대나 상대편이 알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발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22)와 같은 것이다.

(22) 가. 효정: 유경아 덕구라는 사람 말야. (별 관심 없다는 듯)집이 농장하니?
유경: 아마 그럴걸.
효정: (오케이 싶지만 감정 죽이고)그래. 참 나 전시회장에서 장철수 씨 봤다. 근데 그 남자 여자 있더라.
유경: 그래? 거기 같이 왔었어? <환상의 커플, 6회>
나. 인옥: ...(꽃 보며 기운없이) 이 정도 꽃바구니면 얼마나 하니.
지은: (물 따라 마시며) 한 십만원은 할걸? 넘을 수두 있겠다.
인옥: 미쳤구나...그 돈이면 소고기가 몇 근이야. <눈물이 보일가봐,

7) 혼잣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혼잣말이라도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때에는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름'의 의미가 있다(최동주 2008:230).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회>

따라서 '-을걸$_1$'은 기본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며,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경우에 쓰이는 것은 맥락에 의해서 도출되는 화용적 의미이다. 아래 예문 (23)을 살펴보자.

(23) 지원:(자기 노트를 채영의 것과 비교를 해보며) 이 웨이브가 인풋대로 나온 거 맞니?
채영: (보며) 그건 빼구 합산해야 될걸. <카이스트, 5회>

(23)에서도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의미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것은 빼구 합산해야 한다는', 즉, 지금 지원이가 하고 있는 것(빼고 합산하지 않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해 도출된 의미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역시 추측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을걸$_1$'의 의미를 '추측'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을걸$_1$'이 항상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는 기타 추측 표현과의 변별적 의미가 될 수 있다.

(24) 은하: (올라서) 이우진 너 정말 왜 이래?!
안드레아: (잠시 보다가) 미안. (손놓아 준다. 따뜻하게 웃는) 왜 이러냐면 그냥 난 니 기분을 정말로 알 것 같고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 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노력할거야.
은하: (보는 그러다가 짐짓 빈정거리는) 실망할걸? 니가 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망할거야.
안드레아: (단호한) 실망 안해.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 안 할거야. <러브레터, 1회>

(24)에서 은하는 '-을걸'을 사용하여 안드레아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똑같이 기본 의미가 '추측'인 '-을 것 같다'나 '-을 것이다'를 사용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을걸$_1$'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의 의미는 기타 추측 표현과 구별되는 변별적 의미가 된다.

또한 '-을걸$_1$'은 '-을 것이다'에 비해 화자가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낮다. (24)에서 은하는 처음에는 '실망할걸?'과 같이 '불확실한 추측'을 하였지만, 곧바로 다시 '실망할거야'로 '확실한 추측'을 하였다. 이는 아래 예문 (2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5) 기성: 이번 주 거는 우리 어시들 중에 영재라고 알지? 걔가 갖고 갈거야. 마무리 하는 대로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두어 시간 내로 도착할걸.
> <러브스토리, 14회>

(25)에서 알 수 있다 시피 '-을걸$_1$'은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고, '-을 거야(-을 것이다)'는 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두 추측 표현은 확신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을걸$_1$'의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도 기타 추측 표현과 구별되는 변별적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을걸$_1$'과 기타 추측 표현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추측으로 쓰이는 '-을걸$_1$'은 대부분의 추측 표현이 가지고 있는 완곡 표현 즉, 부담 완화나 체면 유지의 화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을걸$_1$'은 '불확실한 추측'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을걸$_1$'은 화자가 정말 확신이 없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래 예문 (26가)와 같이 발화문의 명제가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자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흔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진술하여 청자와의 불일치를 피하고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공손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6나)에서도 '-을걸$_1$'의 이러한 화용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박교수: 그래서 나온 말이 모난 정이 돌맞는다.. 이거잖아.
정태: 모난 돌이 정을 맞을걸요.
박교수: 그렇지.그래서 우리 나라에 천재도 없고 영웅도 없는거야.
<카이스트, 6회>
나. 박사1: 너 바보지?
만수: 에에.. 헤헤. 설마 아닐걸요. 그래도 대학원에도 들어왔는데..<카이스트, 9회>

추측의 '-을걸$_1$'은 대부분 상향억양으로 발음되고, 후회의 '-을걸$_2$'는 대부분 하향억양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최동주(1998)에서 논의된 것처럼 추측의 '-을걸$_1$'도 하향억양으로 발음될 수 있다. 그러나 낮았다 평탄하게 유지되는 억양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하향 억양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억양이 쓰인 경우는 '경고'의 의미가 느껴진다고 했다.

(27) 가. 지금 가면 혼날걸
나. 내일은 더 추울걸 (최동주, 1998: 229)

위에서의 '-을걸'은 추측의 '-을걸$_1$'이지만 반드시 상향억양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낮았다 평탄하게 유지되는 하향억양으로 발음될 수 있는데, 이 때 '경고'의 의미가 있다.

또한 명제의 내용이 뻔한 사실에 대한 한탄이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 체념할 경우에도 하향억양으로 발음된다.

(28) 가. 뭐가 아쉬워서 계속 나올라 그래? 나와 봤자 다시 들어갈걸.
나. 보면 뭘해.. 가슴만 아플걸. <바람의 나라, 25회>
다. 가봐야 재미없는 게임이나 하다 올걸.
라. 가란: 그래봤자 또 질걸. <단팥빵, 3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마. 박사장: 괜히 시간낭비지. 이럴걸 뭐하러 재판해? 이기지도 못할걸. 안그래 김사장? <수상한삼형제, 58회>

(28)에서는 모두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라는 점에서 '-을걸$_1$'이 쓰인 것이지만, 하향억양으로 발음된다. (28)의 예문 모두 '~해봤자 ~걸 뭣하러 해'의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화자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또한 명제의 내용은 부정적인,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는 하향억양으로 발음하여 '뻔한 사실에 대한 한탄'의 감정이나 '체념'을 나타내게 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 후회 의미의 '-을걸$_2$'

3.1. '-을걸$_2$'의 문법적 특성

후회 의미의 '-을걸$_2$'는 (29)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사와만 결합한다. (29나)와 (29다)에서는 '-을걸$_2$'가 형용사 및 '이다'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29) 가. 성준: 왜, 라면 먹고 싶다며.
　　　연욱: ... 떡볶이나 해먹이고 보낼걸.
　　　성준: ... 나중에 해주면 되잖아. <눈사람, 10회>
　　나. *영희 지금 많이 예쁠걸. (후회의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음)
　　다. *그 일 한 사람이 철수일걸. (후회의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30)과 같이 몇 몇 '하다' 형용사와는 결합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30) 가. 내 감정에 솔직할걸 (그랬어)
　　나. 그 때 흥분하지 말고 좀 냉정할걸 (그랬어)
　　다. *좀 더 날씬할걸[8] (그랬어)

'-을걸$_2$'가 결합 가능한 형용사는 아주 한정되어 필자는 위의 두 단어만 발견하였다. 이에 몇 몇 형용사가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0가, 나)에 쓰인 '솔직하다, 냉정하다'와 같은 '하다' 형용사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래 3.2.에서 살펴볼 '-을걸$_2$'가 기본적으로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결합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화자가 통제 불가능한 (30다)와 같은

8) '-을걸$_1$'로 쓰일 때는 비문이 아니지만 '-을걸$_2$'로 쓰이면 비문이 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하다' 형용사에는 '-을걸$_2$'가 통합될 수 없다.

'-을걸$_2$'는 '-었-'과 결합할 수 없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을 뜻하므로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었-'이라는 과거 표지를 붙이지 않고서도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었-'을 잉여적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후회의 '-을걸$_2$'에 '-었-'이 붙으면 (31가′, 나′, 다′) 처럼 비문이 된다.

(31) 가. 윤 양: 저기 사장님 안계시거든요.
향 옥: 전화해보구 올걸...늦게 온대요?
윤 양: 한 열흘이나 보름 후 쯤 오실거예요. <온달 왕자들, 129회>
가′. *전화해보구 왔을걸.
나. 세나: 저도 정치가나 될걸 그랬어요 <웨딩, 1회>
나′. *정치가나 됐을걸 그랬어요.
다. 진희: 아, (하다가) 나도 인사할걸 그랬네. <웨딩, 4회>
다′. *나도 인사했을걸 그랬네.

'-을걸$_2$'에 '-었-'이 결합하여도 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구축한 말뭉치와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는 '-을걸$_2$'에 '-었-'이 결합한 경우는 없었다. 아래 (32)는 필자가 구축한 말뭉치에서 추출된 '-을걸$_2$'에 '-었-'을 결합하여도 그나마 자연스럽다고 생각된 예문을 제시한 것이다.

(32) 가. (길게 하품하며) 이것도 못할 짓이네. 낚싯대라도 가져올걸. <마린보이>
가′. ??낚싯대라도 가져왔을걸.
나. 진작에 공부를 더 해 놓을걸. <마당 깊은 집, 8회>
나′. ?진작에 공부를 더 해 놨을걸.
다. 예전에 박실장님께서 슬쩍 얘기 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때 자세히 들어둘걸 그랬어요. <열아홉순정, 2회>
다′. ?그때 자세히 들어뒀을걸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32가′)는 아주 어색한데 비해 (32나′)는 (32가′)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이며 (32다′)는 필자로서는 어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었-'과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었-'이 잉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었-'을 붙여 과거를 나타낼 필요가 없으나, '-었-'을 붙여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경우(32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을걸$_2$'가 '-었-'과 결합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을걸$_2$'의 부정문은 (33)과 같이 '-지 말-'부정문이 가장 흔하며, (34)에서 보다시피 '못' 부정문은 쓰이지 않는다.

(33) 가. 거긴 괜히 갔어. 가지 말걸.

나. 영수: 아후.. 저거 조퇴시켜주지 말걸 그랬나? <2008 코끼리, 31회>

(34) 가. 거긴 괜히 갔어. *못 갈걸.

나. 거긴 괜히 갔어. *가지 못할걸.

'-을걸$_2$' 앞에는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온다. 이는 나중에 언급될 '-을걸$_2$'의 기원 형식과도 연관이 있다. '-을걸$_2$'는 근대 한국어 시기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 것을'에서 왔다. '당위'를 나타내는 '을 것을'의 앞에는 항상 바람직한, 해야 할 사실이 결합된다. '-을걸$_2$'는 이러한 '을 것을'이 후행절의 생략 및 축약을 겪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을걸$_2$'의 앞에도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오는 것이다.

'-을걸$_2$'의 부정문에서 '-지 말-' 부정문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에 기인한 것이다. '-지 말-' 부정문은 (35)와 같이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이 쓰이지 않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쓰이는데 평서문에 쓰일 경우는 (36)과 같이 화자의 희망이나 기원을 나타낸다.

(35) 가. 창문을 열지 말라.

나. *창문을 안 열어라.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창문을 못 열어라.

(36) 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
나.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후회의 '-을걸$_2$'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기원이나 희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 말-'부정문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안' 부정문의 경우 '-지 말-' 부정문보다는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구축한 말뭉치에서 '-을걸$_2$'의 단형 부정문의 예문은 추출됐으나 장형 부정문의 예는 보이지 않았다.

(37) 가. ?거긴 안 갈걸.
나. *거긴 가지 않을걸.
다. 거긴 가지 말걸.

(37)에서 우리는 '-지 말-' 부정문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 부정문의 경우 단형 부정문은 가능하고 장형 부정문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 (38)은 말뭉치에서 검색된 '-을걸$_2$'의 '안' 부정문의 예이다.

(38) 가. 동 주: <u>안태워줄걸</u>. 사정사정해서 태워줬더니... <파라다이스 목장, 8회>
나. 준하: 이선생이 유선이 아픈거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유진: !
준하: 미안해요. 말 <u>안할걸</u> 그랬나요?
유진: 아니예요. 괜찮아요. <네 자매 이야기, 9회>

아래 (39)에서 (39가)는 검색된 '-을걸$_2$'의 '안' 부정문중 단형 부정문의 예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문이고, (39나)는 이를 장형 부정문으로 변형시켜본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안' 부정문의 장형 부정문도 가능함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필자가 인위적으로 고친 경우이고 말뭉치에서는 '-을걸$_2$'가 '안' 부정문의 장형 부정문으로 쓰인 예는 없었다.

(39) 가. 덕칠: 엄마. 나 이혼 괜히 했나봐. 빌고 또 빌고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빌어서 이혼만은 안할걸. <소문난칠공주, 19회>
나. 빌고 또 빌고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빌어서 이혼만은 하지 않을걸.

'-을걸$_2$'는 '-을 것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듯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랬다, 그랬네, 그랬나, 그랬나 보다, 그랬죠 ' 등과 같은 표현이 뒤따르는 일이 흔하다. 다음은 이를 보인 것이다.

(40) 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것을...
나.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릴걸... (박재연 2006:221)
다. 전화를 하고 올걸 그랬군. (강현화 2008a:58)
라. 전화 하고 올걸 그랬다.
마. 화란: (웃는) 우리 그냥 오리배 탈걸 그랬나봐요. <결혼 못하는 남자, 8회>
바. 물이라도 좀 드릴걸 그랬죠?
사. 학교 갈걸 그랬나?

(40가)는 '-을 것을'이 '-을걸$_2$'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을걸$_2$'가 '-을 것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40나)에서처럼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을걸$_2$'는 '-을 것을'에 뒤따르는 부분이 절단되어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게 되면서 새롭게 종결어미로 간주되게 된 형식이다. 아래는 근대 한국어 시기의 '후회'의 의미로 쓰인 '-을 것을'의 예문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1) 가. 대군이 나가 우ᄅᆞ시며 대뎐 형님이 누의님으란 어엿버 ᄒᆞ고 날난 본 톄도 아니ᄒᆞ니 나ᄂᆞᆫ 누의님이나 될 거ᄉᆞᆯ 무ᄉᆞ 일 ᄉᆞ나희 되둣던고 ᄒᆞ시고 죵일토록 우ᄅᆞ시니 보오매 불샹ᄒᆞ시더라 <16**, 서궁일기, 5b>

나. 힝여 조차 갓던 아ᄒᆡ들은 노홉고 애ᄃᆞ라 도로 너머오며 혼잣 말노 닐오ᄃᆡ 이럴 줄 아던들 가지말 거ᄉᆞᆯ 나갈가 너겨더니 욕도 보건쟈 울고 온 아ᄒᆡ도 잇고 우리들 다시 가쟈 ᄒᆞᄂᆞᆫ 아ᄒᆡ도 잇더라 <16**, 계축일기, 33b>

다. 갓가히 와서 셩을 보샤 우시며 ᄀᆞᆯᄋᆞ샤ᄃᆡ 이제라도 너ㅣ 평안ᄒᆞᆫ 일을 알앗더면 다ᄒᆡᆼᄒᆞᆯ 거ᄉᆞᆯ 오직 네 눈에 숨겻시니 날이 쟝ᄎᆞᆺ 니ᄅᆞᆯ지라 네 원슈도 토셩을 ᄡᅡᆺ코 너ᄅᆞᆯ 에워 ᄉᆞ면으로 직희고 ᄯᅩ 너와 및 안헤 잇ᄂᆞᆫ ᄌᆞ식을 ᄶᅡ헤 내여 더지며 돌을 돌 우헤 ᄂᆞᆷ겨 두지 아니ᄒᆞ리니 이ᄂᆞᆫ 너희 권고ᄒᆞᄂᆞᆫ 날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ᄒᆞ시더라 <1900, 신약전서, 19>

라. 셩이 네게 니ᄅᆞ도록 긋치지 아냣더니 이제 망ᄒᆞᆷ을 보라 너도 유명ᄒᆞᆫ 션비로서 아직 지각이 닉지 못ᄒᆞᆷ으로 조샹의 졔ᄉᆞᄅᆞᆯ ᄭᅳᆫ키ᄶᅵ 니ᄅᆞ렷시니 나ㅣ 과연 이 모양이 될 줄을 알앗더면 곳 친히 가셔 너ᄅᆞᆯ 권면ᄒᆞ야 네 어두온 눈을 열어 ᄇᆞᆰ혀 주어 이 ᄀᆞᆺᄒᆞᆫ 디경을 면케 ᄒᆞᆯ 거ᄉᆞᆯ 이제 그러케 되엿실지라도 ᄭᅩᆺ출 ᄆᆡ진 거시 아니라 이왕 셩현들도 혹 불도(佛道)와 로ᄌᆞ(老子) 도에 실슈ᄒᆞ셧다가 회ᄀᆡ천션ᄒᆞ셧시니 이러므로 너도 지금 곳쳐 이젼 셩현들의 영화로온 자최ᄅᆞᆯ ᄇᆞᆲ기로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1906, 경향보감>

(41)에서 '-을 것을'은 모두 절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다. (41나, 다, 라)에서는 '이럴 줄 아던들, 알앗더면'이 쓰이고 있어 반사실적 가정 구문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을걸$_2$'가 '-을 것을' 구문 중에서도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근대 한국어 시기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한국어의 '-을걸$_2$'에도 남아있다. '-을걸$_2$' 앞에 '이럴 줄 알았다면'과 같은 표현이 자주 오며, 이와 같은 표현 없이 '-을걸$_2$'만 단독으로 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였을 때도 앞에 ‘이럴 줄 알았다면’과 같은 표현을 결합하여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2) 가. 이럴 줄 알았음 네 애비 왜 그 꼴 됐나 진작 알려줄걸. <마이프린세스, 6회>
나. 걱정이네요. 이럴 줄 알았음 차라리 일본에 제가 갈걸 그랬어요. 그럼 맘이라도 편할텐데... <밤이면 밤마다, 1회>
다. 수현 : 아직 다 된 거 아냐. 이럴 줄 알았음 좀 더 빨리 만들걸... <개와 늑대의 시간, 1회>

(43) 가. 여자 선생님 말을 들을걸 그랬어요! <닥터챔프, 13회>
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 선생님 말을 들을걸 그랬어요!
나. 전화하구 떠날걸. 선남이 데리구 경주 문화엑스포 갔었어요. <보고 또 보고, 155회>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하구 떠날걸.
다. 한번만 더 물어볼걸... <건빵선생과 별사탕, 7회>
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번만 더 물어볼걸...

(42)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이럴 줄 알았으면’의 후행절에 오는 ‘-을걸$_2$’의 예문이다. (43가, 나, 다)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이고 (43가′, 나′, 다′)은 필자가 ‘이럴 줄 알았으면’을 결합하여도 ‘후회’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됨을 나타낸 예문이다.

아래 (44)는 ‘-을걸$_2$’의 생성과정을 재구해본 것이다.

(44) 가. 진작 너랑 상의해볼 것을 상의하지 않았네.(상의하지 못했네)
나. 진작 너랑 상의해볼 것을.(그러지 못했네.)
다. 진작 너랑 상의해볼걸.

‘-을걸$_2$’는 본디 (44가)와 같이 ‘을 것을’의 형태로 절 접속의 기능을 하다가, 후행절이 예측 가능함에 따라 후행절이 생략되고 ‘-을 것을’이 축약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을 일으켜 '-을걸$_2$'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략과 축약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었음에는 분명하다.

'-을걸$_2$'는 뒤에 '요'가 직접 결합할 수 없고 후행하는 '그랬다, 그랬네'와 같은 표현에 결합할 수 있다.

(45) 가. 좀 더 빨리 올걸.
나. *좀 더 빨리 올걸요.
다. 좀 더 빨리 올걸 그랬어요.

(45)의 '-을걸'을 '후회'의 '을걸$_2$'로 본다면 (45나)는 비문이 된다. 상대방을 대우할 경우 (45다)와 같이 '그랬어'와 같은 표현 뒤에 '요'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이는 '-을걸$_2$'가 (44)와 같이 후행절 전체가 생략되어 생겨난 종결어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재연(1998: 80)에서 언급했다시피 '-을걸$_2$'에 직접 '요'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을걸$_2$'가 주로 혼잣말에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을걸$_2$'가 항상 혼잣말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며, 대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45다)와 같이 '그랬어요'와 같은 표현을 붙여서 높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을걸$_2$'에 직접 '요'가 결합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해체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9]

3.2. '-을걸$_2$'의 화용적 특성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후회'의 의미를 갖는 '-을걸$_2$'에 대

9) 박재연(1998:80)에서도 '을걸$_2$'에 '요'의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어미의 혼잣말과 관련된 의미론적 속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반말체의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 풀이를 옮긴 것이다.

(46) -을걸「어미」

「2」 (ㄹ 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 대하여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먹을걸}./하라고 할 때 그 일을 {맡을걸}./그들이 가까운 데에 살았으면 좀 더 잘해 {줬을걸}.§ #참-ㄹ걸.

보다시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을걸$_2$'의 의미를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후회'란 '의사결정자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현재 상황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상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이고 인지적으로 정의된 감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을걸$_2$'의 기본 의미를 '후회'로 보고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후회'의 의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전형적인 '후회'는 과거 상황이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을걸$_2$'가 그러한 상황에 쓰임을 보여준다. (권영은 2008: 2에서 인용)

(47) (계단을 내려왔을 때 지하철이 막 떠나는 상황에서)

가. 저걸 탔어야 했는데.

나.$^{??}$저걸 탈걸.

(48). *이번 반장 선거에서는 내가 당선될걸.('후회'의 의미)

(47)은 지하철을 탈 수 없었던 상황, 즉 화자가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탔어야 했는데'는 가능하지만 '탈걸'은 어색함을 보여준다. (48)은 '추측'의 의미라면 가능하나 '후회'의 의미로는 불가능하다. 반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화자가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이는 '-을걸$_2$'가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음을 말해주며(권영은 2008: 83), 이러한 의미에서 '-을걸$_2$'는 전형적인 '후회'의 표지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을걸$_2$'는 항상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49) 가. 차라리 나같은거.. 첨부터 태어나버리지도 말걸. <안녕하세요 하느님, 14회>

나. 미자모: (속상한) 너를 딸로 날걸, 내가..에으..속상해, 정말. <화려한 시절, 50회>

다. 윤아: (살짝 취기 올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차라리... 내가 다칠걸... 아님 확 죽든가. <올드미스다이어리, 91회>

'-을걸$_2$'는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쓰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49)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님에도 '-을걸$_2$'가 쓰였다.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딸이나 아들을 선택한다는 것, 자신이 다친다는 것은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화자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랬을 것이라는 바램을 나타내면서 후회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후회의 '-을걸$_2$'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후회'의 의미 특성상 다른 사람의 일이나 사건에 대한 후회는 불가능하므로 '-을걸$_2$'가 쓰인 문장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어야 할 것이다(박재연 1998: 80, 2006: 222, 권영은 2008: 49). 그러나 강현화(2008a: 58-59)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50) 가. (아들과 딸)

종숙: 맨날 방안에서 조카나 봐야 하고...

종말: 너 괜히 내려 왔어. 그대로 있을걸.

나. (아들과 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미현: 양식 먹는데 포도주 한잔 갖다 놓는 거야 구색이지요. 진작 포도주나 좀 담그실걸 그랬어요.

이모: 이미, 담궈 놨어. (강현화 2008a: 58-59)

(50가, 나)는 주어가 화자가 아닐 때에도 '-을걸$_2$'가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현화(2008a: 58)에서는 이를 '아쉬움'이라 하고, '청자의 행동에 화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한 화자의 '후회''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강현화(2008a)의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되 다른 한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화자가 청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거나를 떠나서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 대신 '후회'를 하면서 그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의 '-을걸$_2$'는 2인칭에 쓰이며, 3인칭에 쓰인 예는 말뭉치에서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을걸$_2$'가 쓰인다 하더라고 단독으로 쓰인 예는 드물고, '-을걸$_2$' 뒤에 '그랬다, 그랬죠, 그랬나 보다, 그랬지' 등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아래 (51)은 이를 보인 것이다.

(51) 가. 연수: 너라도 혼자 갈걸 그랬다. <아름다운 날들, 2회>

나. 재성: 그때 내가 회사 관두고 엄마가 계속 다닐걸 그랬나봐. <워킹맘, 1회>

다. 주인턴: 아무래도 병원으로 가실걸 그러셨습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라두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동재: 괜찮아. 난 여기가 편해. <안녕하세요 하느님, 14회>

라. 대풍: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구나.

민우: 형도 갈걸 그랬지?

대풍: 난 여기서 리조트 건 해결해야할 일도 한 바가지다... 너나 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녀와라. <여름 향기, 3회>

(51라)는 민우가 '형도 갈걸 아쉽지요?'의 의미로 발화하고 있다. 대풍은 이에 아니라고 대답한다. 여기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후회를 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랬지'가 의문문의 형태로 쓰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문문이란 화자가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혼잣말로 본인에 대해 쓸 수도 있지만 대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칭에만 쓰여 후회를 나타내는 '-을걸$_2$'라고 하더라도 의문문에 쓰이면 상대방이 후회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을걸$_2$'는 후행하는 '그랬다, 그랬어, 그랬네, 그랬나?, 그랬지?, 그랬죠?' 등 표현의 영향을 받아 '후회'의 강도가 달라진다. 즉, '그랬다, 그랬어, 그랬네'가 쓰이면 '후회'의 의미가 온전히 느껴지는 반면, '그랬나?, 그랬지?, 그랬죠?'등 표현이 뒤따를 때는 앞의 경우보다는 '후회'의 의미가 약해진다. 이는 의문문의 특성이 '-을걸'에 영향을 준 것이다.

(52) 가.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다.
나.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어.
다.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네.
라.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나?
마.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지?
바.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죠?

(52라)는 1인칭 주어로 자주 쓰이며 대화체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혼잣말로 쓰일 수도 있다. (52마, 바)는 대화체에 쓰여 화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도 있다. 1인칭일 경우는 자신이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의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2인칭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이 후회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우가 된다.

(53) 가. 마리: 어린 시절에 알았던 남자앤데 몇 십 년 만에 다시 만났어.
철수: 운명은 운명이네.
마리: 운명은 무슨..
철수: 첫사랑에 운명의 상대에.. 평범한 만남으론 이마리씨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마리: 우리도 좀 특별하게 만날걸 그랬지? <스타의 연인, 8회>
나. 덕배: 고장인가?(다시 시동 걸어보는데 안 걸린다)시동이 안 걸리네요..
복만: (버럭) 아우 씨! 엥꼬난 거잖아!!
덕배: 에이~ 설마요..
복만: 설마는 뭐가 설마야! 내가 기름 넣으라고 몇 번 말했어! 왜 말을 안 들어 인마!!
덕배: 그루게요...말을 들을걸 그랬죠?
복만: (덕배 뒤통수 때리며)에라이!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않지! <코끼리, 62회>
다. 너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지?
라. 언니 효신이 말 들을걸 그랬죠?
마. 대풍: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구나.
민우: 형도 갈걸 그랬지?
대풍: 난 여기서 리조트 건 해결해야할 일도 한 바가지다... 너나 잘 다녀와라. <여름 향기, 3회>

(53가, 나)는 1인칭으로 쓰여 자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의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어떠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53다, 라, 마)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즉,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4. 타박 의미의 '-을걸$_3$'

4.1. 문법화의 개념

문법화는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Meillet(1912)의 정의 이후 어휘 항목이 문법적 단어로 변화하는 과정, 또는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문법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문법화의 범위는 고정되지 않고 차츰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법화는 문법형태가 다양하게 발달한 한국어의 통시적 변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공시적인 언어 변화까지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법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찍이 중국 원나라 때의 주백기가 '모든 허사는 실사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 뒤로 19세기에 와서 독일의 Franz Bopp는 '어휘 형태 > 조동사 > 접사 > 굴곡 형태'로 변화하는 연속 변이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한편 Humbolt(1822)는 문법화의 네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화용적 단계로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없고 관용어, 구, 절 등을 통해 지시되는 단계이고, 제2단계는 통사적 단계로 어순이 고정되고 형식 의미 사이를 오락가락한 몇 단어들이 기능어로 진화되는 단계이며, 제3단계는 접어화 단계로 기능어들이 실질어에 붙어서 교착적 쌍을 만들어 순전히 문법 관계만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제4단계는 형태적 단계로 교착적 쌍이 통사적 단어 복합형태로 융합되어 형식어, 굴곡어, 완전한 문법 요소들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통시적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만 적용한 문법화를 공시적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언어 현상의 설명 방법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대표적인 학자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T.Givon인데, 그는 오늘의 형태론은 어제의 통사론이고 오늘의 통사론은 어제의 화용론으로 보아, '화용 > 통사 > 형태'로의 문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문법화의 개념은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담화적인 것에서 통사적인 것으로의 변화까지 문법화에 포함하게 되었다.

한편 권재일(1998:886)에서는 어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문법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문법적인 기능을 얻게 되는 것을 문법화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대체로 형태론 층위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대화상의 함축 의미나 화용적 추론에 의한 문맥 의미가 언어 내적 의미를 얻게 되거나, 통사 구조가 하나의 어휘 표현으로 굳어져서 언어 체계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문법화의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차츰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내용어가 형식적 의미를 지닌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을 문법화라 보았으나 최근에는 역사적인 관점은 물론 공시적인 관점에서도 문법화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문법화는 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을 포함하여 기능어가 또 다른 기능어로 사용하는 현상까지 문법화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법화의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각 논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또는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커지는 현상"이라고 한 Kurłowicz(1975: 52)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문법화란 어휘항목이 문법형식으로 변하는 것과 '덜 문법적인 형식'이 '더 문법적인 형식'으로 변화는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하는 언어 변화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을걸$_2$'나 '-을걸$_3$'은 모두 연결의 기능을 하던 것이 종결어미로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종결어미가 연결어미보다 더 문법적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 것은 아니지만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은 문법화가 겪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문법화' 개념을 사용한다. 아래 문법화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 보고 이러한 현상을 문법화의 원리로 설명 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Hopper(1991)에서는 5가지 문법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각각 층위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특정화의 원리, 의미지속성의 원리, 탈범주화의 원리 등이다. 여기에서는 권재일(1998:893~897), 이성하(1998)에 따라 Hopper(1991)의 5가지 문법화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층위화(layering)란 기존의 층위와 새로운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 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는 여러 표현들이 공존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문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공존하는 단계를 거쳐, 'A > A/B > B'와 같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 실제적 보기로 가장 흔한 언어 현상은 완전형과 축약형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공존하는 경우이다.

분화(divergence, split)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상·기능상 나누어지는 현상이다. 넓은 의미의 분화는 하나의 근원에서 여러 문법소들이 갈라져 나오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분화는 한 단어가 문법소가 되면서 그 원래 단어는 그냥 내용어(어휘어)로 남아 있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문법소는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변해 가는 현상이다.

특정화(specialization)는 한 문법 요소가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여러 문법 요소들이 층위화 현상에서 보듯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해당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 요소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데, 그 중의 특정 문법 요소가 그것의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해당 문법 기능을 전담하는 문법 요소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화는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반화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란 문법화가 된 이후에도 원래 의미의 흔적이 남아서 문법적 분포에 제약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문법 요소가 점점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의미도 변화하고 형태도 변화하지만 그런 변화를 거친 후에도 원래 단어의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의미지속성의 원리이다. 이것이 문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미지속성 때문에 새로운 문법화소가 공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는 한 문법화소가 점점 문법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서 명사나 동사와 같은 주범주에서 시작되어 점차로 형태적, 통사적 고유 특성을 상실하고 부범주의 특징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사/동사 > (형용사/부사) > 점속사/전치사, 대명사, 지시사'로 변하는 연속변이의 방향을 보이며, 이 방향은 단일 방향적이다.

Hopper(1991)에서 제시한 문법화 원리 중 분화의 원리는 본디 하나의 문법 기능을 수행하던 문법 형태가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법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종결 표현 '-을걸'은 본디 연결의 기능을 하는 '-을 것을/-을걸'에서 종결어미화되어 지금 종결어미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문법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문법화란 '과정'의 개념인가, '결과'의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남미정(2007: 49)에서는 '과정'으로 보는 문법화에 대해 "공시태에서 언어 변화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불필요한 예측까지 문법화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법화를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법화를 '과정'으로 본다고 하여 어떤 언어현상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떤 언어형태가 'A → B → C'의 단계를 거쳐 'C'라는 결과의 문법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할 때, 남미정(2007)의 논의를 따르면 'C'의 단계에 이르러야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 → B'의 과정을 문법화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하여 꼭 'B → C'의 변화까지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법화는 언어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결과') 있는 것이다.

4.2. '-을걸$_3$'의 특성

실제 구어 말뭉치를 분석해보면 하향억양으로 발음되었다 평탄하게 유지되는 발음을 가지는 '-을걸$_3$'이 있다.[10] 이러한 '-을걸$_3$'은 상대방이 더 바람직한(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스러움'이나 '원망'의 감정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타박[11]'으로 포괄하여 보고자 한다. '-을걸$_3$'은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않고 아직 문법화 과정에 있지만 추측의 '-을걸$_1$'이나 후회의 '-을걸$_2$'와는 다른 통사적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을걸$_3$'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을걸$_3$'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천갑: 야, 임마, 적당히 둘러대지, 곧이곧대로 하교수 집에 갑니다, 그러냐. 회사 일로 회식이 있다고 해도 될걸. 고지식한 하교수랑 만나더니 너까지 물 든 거냐?
강석: 그러게요, 예전처럼 머리 굴리는 게 잘 안되네요. <가문의 영광, 40회>

---

10) '-을걸$_3$'은 하향억양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을걸$_3$'의 문법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향억양으로 발음되었다가 평탄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아직 문법화가 덜 진행된 단계이고, 하향억양으로 발음된 경우는 문법화가 좀 더 진행된 단계로 생각된다.

11) '타박'의 사전적 의미는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핀잔하다'(≪표준국어대사전≫)이다. 본고에서는 '-을걸$_3$'의 의미를 한 단어로 나타내기 위해 '타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안스러움, 원망' 등의 의미도 포함시켰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54)에서 천갑은 '회사 일로 회식이 있다고 해도 될걸 (곧이곧대로 말하면 어떻해?)'이라고 발화하면서 강석을 꾸짖고 있다. 여기서 쓰인 '-을걸'의 억양이나 의미 면에서 추측의 '-을걸$_1$'이나 후회의 '-을걸$_2$'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절에서의 '-을걸$_3$'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차이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래 '-을걸$_3$'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을걸$_3$'은 동사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55) 차를 세웠나 보다. 그냥 타고 올라와도 될걸... <국회, 12회>

'-을걸$_3$'이 나타나는 문장의 명제는 현재나 과거의 일일수도 있으나 '-었-'과는 결합할 수 없다.

(56) 가. 그냥 싫다고 하면 될걸...
　　나. *그냥 싫다고 하면 되었을걸...
　　다. *그냥 싫다고 하면 됐을걸...

'-을걸$_3$'은 거의 부정문을 가지지 않는다. 아래는 '안' 부정문의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모두 불가능한 것을 보인 예이다.

(57) 가. *차를 타고 올라와도 안될걸...
　　나. *차를 타고 올라와도 되지 않을걸...

이는 '-을걸$_3$'의 앞에는 항상 바람직한 사실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부정문의 형식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을걸$_3$'은 일반적으로 주어가 2·3인칭이고 1인칭이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후회의 '-을걸$_2$'가 주로 1인칭에 쓰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2·3인칭에 쓰이는 것과 대조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58) 가. 광희: 니가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분유 좀 사오면 될걸, 쪼잔하게... <아빠셋 엄마하나, 5회>

나. 은숙: (창문 내리고)나, 헬스장 간다. 근데 정말 버리면 가져가기로 한 거야?

수영: (저쪽으로 보며) 어. 빨랑 가 엄마.

은숙: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도루 달라고 그럼 될 걸, 버린 거 가져가면 자존심이 산대니?

수영: 아,가! 엄마 있음 어머님 또 안 가져가실지 몰라. <김치·치즈·스마일, 7회>

또한 이상의 예문을 통해 '-을걸$_3$'은 주로 조건절 뒤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걸$_3$'은 '-을 것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듯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가지고, 가지고 그러네'와 같은 표현이 뒤따르는 일이 흔하다. 다음은 이를 보인 것이다.

(59) 가. 재인: 그러게 뭐하러 전화를 해 ?

다현: 전화 안하면요? 그래도 어딨는 줄 알고 계시는 게 낫지요.

재인: 누구랑은 말하지 말아야지. 너무 솔직했잖아. 알아서 잘 둘러대면 될걸 가지고. <1프로의 어떤것, 9회>

나. 알아서 잘 둘러대면 될것을 (가지고).

앞서 '-을걸$_2$'는 뒤따르는 '그랬어'와 같은 표현에 높임 표지 '요'가 결합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을걸$_3$'은 '요'와 직접 결합할 수도 없으며 뒤따르는 '가지고'와 같은 표현에도 붙을 수 없다.[12] 아래 예문 (51)은 이를

12) '가지고' 뒤에는 붙을 수 없지만, '가지고 그러네' 뒤에는 '요'가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타박하는 자리에서 '~을걸 가지고 그러네요.'와 같은 긴 발화는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요'가 과연 '-을걸$_3$'과 결합가능 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의문스럽다. '-을걸$_2$'도 '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잘 보여준다.

(60) 가. 재민: 놀라셨으면 죄송해요. 제가 뵙자고 한 거 였어요.
집사: (애써 미소) 그냥 부르시면 될 걸...어쩐 일이십니까.
재민: 준희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집사: 준희...도련님요?
재민: 아무리 생각해도 안상무님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뭘 바라고 이러시는 건지... <신데렐라맨, 13회>
나. *그냥 부르시면 될 걸요...
다. *그냥 부르시면 될 걸 가지고요...

(60)에서 집사는 재민한테 존칭('어쩐 일이십니까', '도련님요')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냥 부르시면 될 걸'에는 (60나)나 (60다)와 같이 '요'를 사용하지 않았다.

'-을걸$_3$'이 높임표지 '요'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은 '-을걸$_2$'보다 종결어미로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다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을걸$_3$'은 종결어미가 아니라 뒷부분의 문장이 생략된 연결어미일 것이라는 의심이 설 것이다. 본고의 입장부터 밝히자면, '-을걸$_3$'은 단순히 연결어미의 뒷 부분이 절단되어 문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결어미로 문법화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을걸$_3$'은 '-을걸$_2$'와 같이 후행절이 생략되었음은 분명하나 모든 경우의 동사구가 복원 가능한 것은 아니다.

(61) 지애: 이이가 수줍음이 많아 가지구요, 안오겠다고 난린걸 제가 억지로 끌고 온 거 있죠 사모님.
소현: 암튼 선배두. 뭐 어때. 사장이랑 직원이 아니구, 후배 남편이랑 부부동반으로 밥 한끼 먹는다, 생각하면 될걸.

렜어'와 같은 표현이 후행하고 '요'가 '그랬어' 뒤에 붙을 수 있지만, '-을걸$_3$'은 '그러네'가 직접 후행할 수 없고 '가지고 그러네'와 같은 표현이 후행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애: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이가 워낙에 숫기가 없어놔서... <내조의 여왕, 10회>

(62) 은숙: (창문 내리고)나, 헬스장 간다. 근데 정말 버리면 가져가기로 한 거야?

수영: (저쪽으로 보며) 어. 빨랑 가 엄마.

은숙: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냥 도루 달라고 그럼 될 걸, 버린 거 가져가면 자존심이 산대니?

수영: 아,가! 엄마 있음 어머님 또 안 가져가실지 몰라. <김치·치즈·스마일, 7회>

위의 (61)나 (62)와 같은 예문의 '-을걸$_3$'은 분명히 문장을 종결짓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아래 (63)의 '-을걸$_3$'보다는 후행절의 복원이 어렵다.

(63) 김원장: (놀라)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왔어?

금지: 엄마랑 제가 원장님 좋아하시는 반찬 많이 해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원장: 귀찮게 뭐하러 이랬어. 그냥 사먹으면 될 걸. (하며 반찬 먹는) <몽땅 내사랑, 50회>

(63)의 후행절은 문면에 나타나 있으며, 문장의 도치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61)이나 (62)와 같은 '-을걸$_3$'의 후행 동사구는 문면에서 찾기 어려우며 대화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을걸$_3$'은 연결 기능을 하던 '-을 것을'이 문장의 도치나 절단에 의해 문장의 끝에 위치하게 되면서 문법화가 시작된 어미이다. 그래서 문법화 초기 단계인 (63)과 같은 경우는 복원이 자연스럽지만 (61, 62)와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따라서 '-을걸$_3$'은 '-을걸$_2$'만큼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않았지만 일반 연결어미에서 벗어나 종결어미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상 우리는 '-을걸$_3$'의 문법 특성을 살펴보았다. '-을걸$_3$'은 '-을걸$_2$'와 많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은 유사한 문법 특성을 보이면서도 인칭제약에 있어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을걸$_3$'과 '-을걸$_2$'가 동일한 '-을 것을-'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대 한국어 시기 '-을 것+을' 구성이 '당위'와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 '추측'의 의미는 '-을걸$_1$'로 변화되었고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 '-을 것을'은 '-을걸$_1$'과 '-을걸$_2$'로 문법화되었다.

아래는 근대 한국어 시기의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 것을'의 용례이다.

(64) 가. 발셔 ᄂᆞ아와 문병ᄒᆞᆯ 것ᄉᆞᆯ 쳔ᄒᆞᆫ 몸의 미양이 잇고 병셰 이ᄃᆡ도록 ᄒᆞ믈 몰나 ᄒᆞᆫ 번 고문ᄒᆞ미 업더니 <화씨충효록 2: 62>

나. 우리는 계요 디내거니와 심식야 됴흔 빼 이시랴 블셔 답장이나 ᄒᆞᆯ 거ᄉᆞᆯ 왕니 업서 이제야 뎌그며 병환이나 쉬 쾌차홈 바라노라 <나주임씨 3 비오개집 1684 이전>

다. 긔사 말랴 뵈 ᄧᆞᆯ 것도 보내던ᄃᆞᆯ 아ᄆᆞ려나 ᄡᅳ일 거ᄉᆞᆯ 다ᄆᆞᆫ 더듸여만 뎡 요ᄒᆞ란 그리호마 <15**, 순천김씨언간>

라. 자내 양식은 오ᄂᆞᆯ 이 사ᄅᆞᆷ ᄒᆞ여도 보낼 거ᄉᆞᆯ 하 밧비 가매 몯 보내니 나 간 후에 아바님네(?) 년ᄒᆞ여 보내려 ᄒᆞ시뇌(/ᄂᆡ) 아마도 아ᄒᆡᄃᆞᆯ ᄃᆞ리고 몸이나 편히 겨소 쟝모ᄭᅴ는 밧바 술이 몯 뎍ᄉᆞᆸ뇌 젼ᄎᆞ로 알외ᄋᆞᆸ소 <16**, 현풍곽씨언간>

마. 셰후의 문안 사ᄅᆞᆷ이나 블셰 보내오ᄋᆞ올 거ᄉᆞᆯ 지금 몯 보내엿ᄉᆞᆸ다가 보ᄅᆞᆷ날 갓가ᄉᆞ로 텨보기ᄒᆞ고 금개ᄒᆞ고 보내니 닷쇄ᄅᆞᆯ 무거 ᄒᆞᄅᆞ 길 갓다가 어제 알파 몯 가다 ᄒᆞ고 가져 가던 거ᄉᆞ란 쥬인의 주고 ᄃᆞᆯ히 도로 와시니 그런 애ᄃᆞᆯ온 이리 업ᄉᆞ와 무ᄒᆞᆫ 우ᄋᆞᆸ노이다 <16**, 현풍곽씨언간>

바. 아ᄆᆞ가히 이리 오라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긔 여긔 ᄂᆞ려와 어제라도 오올 거ᄉᆞᆯ 路次의 ᄌᆞᆺ브매 이제야 문ᄭᆞ지 왓ᄉᆞᆸᄂᆡ 안히 계시면 오려 ᄒᆞ여 案內 ᄉᆞᆯ오시 ᄃᆞ라 니ᄅᆞ고 오라 御 念比ᄒᆞᆫ 御使ㅣᄋᆞᆸ도쇠 어와 아ᄅᆞᆷ다이 오ᄋᆞᆸ시도쇠 안히 잇ᄉᆞ오니 判事네도 同道ᄒᆞ야 오쇼셔 代官들도 ᄒᆞᆫ 고대 잇ᄉᆞᆸᄂᆡ 아ᄅᆞᆷ답ᄉᆞ외 여긔 오ᄅᆞᄋᆞᆸ소 아직 편히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안즙소　<1676, 첩해신어1a>

사. 亭主의 깃븜이 노의야 업서 亭主의 도리의 술을 지내먹고 아모리ᄒᆞ여 도라가심도 ᄌᆞ시 몰라 使者로 ᄡᅧ 이러로셔 술올 거슬 이도 술의 타스로 ᄡᅥ져ᄉᆞᆸ더니 ᄯᅩ 친히 와 계셔 너모 慇懃ᄒᆞ신 御禮 도로혀 븟그러온 次第ᄋᆞᆸ던ᄃᆡ　<1748, 개수첩해신어9:10b>

아. 요ᄉᆞ이 猝寒의 어이나 지내ᄋᆞᆸ시ᄂᆞ니잇가 나는 별셔 드러와 뵈올 거슬 脚瘇이 대단ᄒᆞ여 여러 날 就館치 몯ᄒᆞ엿ᄉᆞᆸ더니 念慮ᄒᆞᄋᆞᆸ셔 죠흔 膏藥을 어더 주ᄋᆞᆸ시니 厚誼를 어이 닛ᄉᆞ오리잇가 <1790, 인어대방 9:10a>

(64)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을 것을' 앞에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절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행절은 항상 앞의 내용과 대립되는 의미의 문장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좀 이후 시기인 1896년 <독립신문>에 실린 '-을 것을'의 예문(65)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5) 가. 대군쥬 폐하ᄭᅴ 립쳘ᄭᆞ지 된 고로 원고들의 쇼구를 안 ᄒᆞ야 본 지판쇼에셔 자셰히 ᄉᆞ실ᄒᆞ니 피고가 힐셕ᄒᆞ여 말힉 골ᄋᆞᄃᆡ 원고 박졍양은 국가 변란된 날을 당ᄒᆞ야 맛당히 갈거슬 가지 안흔 거슨 의가 업다 칭홈이요 원고가 학부 대신으로 잇슬 ᄯᅢ에 셩균관 거지흔 진ᄉᆞ와 션비 슈효 감흔 일도 의가 업다 홈이요

나. 용셔홀 슈 업는 죄인이 환국ᄒᆞ엿다고 그져 돌 슈 업다 ᄒᆞ엿스니 엇더케 ᄒᆞ자는 말인지 더 자셰히 ᄒᆞ얏더면 더 ᄌᆞ미가 잇슬 거슬 넘으 ᄢᅴ여 노코 말을 흔 ᄭᆞ닭에 우리가 ᄃᆡ답은 아니 ᄒᆞ나 죠가가 박영효 닉부 대신으로 잇슬 ᄯᅢ에 닉부 쥬ᄉᆞ를 다녀스니 엇지ᄒᆞ야 용셔ᄒᆞ지 못홀 죄인 밋헤셔 벼슬을 ᄒᆞ얏스며 엇지ᄒᆞ야 그ᄯᅢ는 그사ᄅᆞᆷ을 그져 두지 말자고 샹쇼 안헛는지 알슈 업더라

'당위'의 의미를 갖는 '-을 것을'의 앞에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절이 온다는 것은 '후회'의 '-을걸$_2$' 앞에도 항상 바람직한 사실이 온다는 것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을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의 의미를 가지고 연결 기능을 수행하던 '-을 것을'이 1인칭의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는 '후회'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2·3인칭과 결합할 때는 '타박'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지 후회의 '-을걸$_2$'는 문법화가 완성되어 종결어미로 쓰임에 반해, 2·3인칭에 주로 쓰이는 타박의 '을걸$_3$'은 아직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종결어미로 굳어질 것인지는 모르는 바이다. '-을걸$_1$', '-을걸$_2$' 및 '-을걸$_3$'의 문법화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1] '-을걸'의 문법화 과정

'-을 것을'	추측	인칭제약 없음	추측의 '-을걸$_1$'
'-을 것을'	당위	1인칭	후회의 '을걸$_2$'
		2·3인칭	타박의 '을걸$_3$'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5.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은 '-을걸$_2$'로 논의된 바 있으며(박재연 2006: 221), '-을걸$_1$'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최동주 2008: 242-246)도 있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을 언급해왔다.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을걸'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수 있기에 먼저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정의를 간단히 내리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반사실적 가정'이란 기본적으로 사실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미래의 일은 기정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실적 가정 구문이 쓰이기 어렵다. 따라서 반사실적 가정 구문은 과거의 일에 자주 쓴다. 반사실적 가정 구문은 흔히 '-으면, -었으면, -었더라면'이 이끄는 조건절이 선행한다.

아래 예문(66)은 흔히 후회의 '-을걸$_2$'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66) '싫어'라든지 '바빠'라고 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나 최동주(2008: 242)에서는 (66)의 '후회'의 의미는 "싫어'라든지 '바빠'라고 했더라면"에서 생겨난 것이며, '좋았을걸'은 '반사실적 가정'의 결과를 추측하여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66)에서 느껴지는 '후회'의 의미는 "과거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말한 데서 파생된 함축적인 의미이며, '좋았을걸'이 선행절에 가정된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 것"(최동주 2008: 243)이라 하였다.

우선 (66)에서 '-을걸'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동사가 아니다. 앞에서 살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본 바 있듯이, '-을걸$_2$' 앞에 선행하는 서술어는 거의 전부가 동사이고 화자가 통제 가능한 몇 몇 형용사(솔직하다, 냉정하다)만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여기의 '-을걸'은 '-을걸$_2$'가 아니다. 또한, '-을걸$_2$'는 '-었-'과 결합이 불가능한데, (66)의 '-을걸'은 '-었-'과 결합 가능하여 '-을걸$_2$'보다는 '-을걸$_1$'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66)의 주어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는 상향 억양으로 발음할 수도 있으며 '요'를 붙여 상대방을 높일 수도 있는데, 이는 (67)과 같이 주어가 3인칭일 때 쉽게 확인된다.

(67) 가. 영희도 시간이 있었더라면 갔을걸.
나. 영희도 시간이 있었더라면 갔을걸요.

(67)은 '후회'의 뜻이 없이 단순히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66)에서의 '후회'의 의미가 '-을걸'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아래 (68)과 같이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부정 표현의 유형에서도 '-을걸$_2$'와 차이가 있다.

(68) 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안 왔을걸/오지 않았을걸.
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오지 말았을걸.
나. 내가 없었더라면 이 문제는 못 풀었을걸/풀지 못했을걸. (최동주 2008: 245)

(68)에서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의 '-을걸'은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지 말-' 부정문은 어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동주(2008)에서는 반사실적 가정구문의 '-을걸'은 '-을걸$_1$'이라고 하였다. 또한 '-을걸$_2$'는 '-었-'과 결합할 수 없으나 반사실적 가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 구문의 '-을걸'은 '-었-'과 결합 가능하다는 점, 형용사나 '이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을걸'을 '-을걸$_1$'로 보았다. 그러나 모든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을걸'을 '-을걸$_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69) 가. 애자: 토요일에도 일찍 나갈 줄 알았으면 전화하고 올걸... (냉장고에 넣는데) <검사 프린세스, 9회>
나. 전화하고 올걸...

최동주(2008)의 논의대로라면 (69가)의 '-을걸'은 '-을걸$_1$'이고 (69나)의 '-을걸'은 후회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을걸$_2$'인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화자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을 형성하는 '이럴줄 알았으면'과 같은 발화를 하지 않고 직접 (69나)와 같이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70)과 같은 예문을 '-을걸$_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70) 가. 하남모: (글썽하지만 미소) 내가 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첨부터 반대나 하지 말걸... 나중에 두고두고 구박하는 거 아니죠? <소문난칠공주, 69회>
나. 달래: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속이나 썩히지 말걸...괜히... 미안해 엄마.. <불한당, 13회>

(70)에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으로 반사실적 가정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에서 '후회'의 의미가 분명히 느껴지며, '좋았다'와 같은 희망 표현의 어휘가 들어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을걸$_2$'에 쓰이는 '-지 말-' 부정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또한 '-을걸$_1$'은 뒤에 무엇인가가 생략된 듯한 느낌이 없는 반면, (70)에서는 '-을걸$_2$'처럼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느낌을 준다. 실제로도 아래 (71)과 같이 반사실적 가정구문의 '-을걸'에서 '-을걸$_2$'와 같이 '그랬어'와 같은 표현이 뒤따른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71) 가. 세나: 이렇게 계속 화만 나고 실망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그랬어요. <웨딩, 17회>

나. 기정: 도시락 든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멜걸 그랬어요. <보고 또 보고, 6회>

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드리러 갈걸 그랬네요.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6회>

또한 부정 표현의 유형에 있어서도 (70)이나 (71가)와 같이 '-지 말-' 부정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을걸'을 '-을걸$_1$'로 통괄하여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을걸'에는 '-을걸$_1$'도 있고 '-을걸$_2$'도 있는 것이지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나타나는 모든 '-을걸'이 '-을걸$_1$'이라든지 '-을걸$_2$'인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66)에 대한 최동주(2008)의 논의를 받아들이되,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모든 '-을걸'이 '-을걸$_1$'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을걸$_1$'과 '-을걸$_2$'가 모두 나타난다고 본다.

반사실적 가정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이 '-을걸$_1$'인지 '-을걸$_2$'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앞서 살펴본 '-을걸$_1$'과 '-을걸$_2$'의 통사적 특징의 차이로 이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었-'과 결합여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회'는 과거의 사실을 전제한다. 즉, '-을걸$_2$'는 과거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었-'과 결합하지 않고서도 앞의 명제가 과거임을 나타낸다. 반면, '-을걸$_1$'은 '추측'의 의미만 가지고 과거 사실을 전제(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었-'과 결합해야 과거의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72) 가.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줄걸.

나.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줄걸 그랬어(요).

(73) 가.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줬을걸.

나.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걔한테 더 잘해줬을걸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다. 철수가 만약 영희랑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영희한테 더 잘해줬을걸.

(72가)는 '후회'의 의미로 느껴지며 문면에 인칭이 나타나지 않아도 1인칭으로 파악된다. 또한 (72나)에서는 '그랬다'와의 결합, 및 '그랬다' 뒤에 '요'가 통합될 수 있는 '-을걸$_2$'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73가)의 주어는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2·3인칭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추측'의 의미로만 가능하며 '후회'의 의미로는 발화될 수 없고 실제 발화에서도 상향 억양으로만 발음된다. (73나)에서 '-을걸'뒤에 바로 '요'가 통합될 수 있는 '-을걸$_1$'의 특징이 확인된다. (73다)는 3인칭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즉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의 '-을걸'은 억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가령 (72가)의 예문을 하향 억양으로 발화하였다면 우리는 분명 '후회'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후행절에 바람직한 사실을 제시함으로 인해 '후회'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후회'란 본디 과거의 사실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었-'이 원칙적으로는 결합하지 않지만 '-었-'이 잉여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문의 특성과 '-을걸$_1$'과 '-을걸$_2$'가 형태가 동일함으로 인해 서로의 특성을 흡수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74) 홍시로 사왔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어요. <김치·치즈·스마일, 71회>

여기서 '좋았을걸'의 '-을걸'은 '-을걸$_1$'이지만 '-었으면(-었더라면)...-을걸' 구문이 '후회'의 의미를 자주 가짐으로 인해 후회의 '-을걸$_2$' 뒤에 붙는 '그랬어'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었-'과의 통합 여부나 '-을걸$_1$'과 '-을걸$_2$'의 문법적 특성으로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 쓰이는 '-을걸'을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의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문이 생길 수 있다. 본고에서 명확히 하고자 했던 점은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이 '-을걸$_1$'이나 '-을걸$_2$' 어느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을걸$_1$' 과 '-을걸$_2$'가 혼재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었-'과의 통합가능성을 기준으로 '-을걸$_1$'과 '-을걸$_2$'를 분별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6. 결론

지금까지 '추측'의 '-을걸$_1$', '후회'의 '-을걸$_2$', '타박'의 '-을걸$_3$'의 문법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 및 이들의 기원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을걸$_1$'이나 '-을걸$_2$'로 잘못 봐왔던 반사실적 가정구문의 '-을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여 '-을걸$_1$'과 '-을걸$_2$'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을걸$_1$'은 동사, 형용사, 및 '이다' 등 모든 용언과 제약 없이 결합 할 수 있고, 선어말 어미 '-었-', '-으시-'와 통합할 수 있다. 대화에서 청자를 높여줘야 할 경우에는 '요'를 붙여 '-을걸요'로 실현된다. 인칭의 제약이나 부정문의 종류에 제약이 없고 '-을 것을'로 복원할 수 없다.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을 것을'이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예들이 발견되고, '요'와 통합하여 문말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며, '-을걸'이 추측의 의미로 쓰인 예도 있었다. 이로 우리는 '-을걸$_1$'의 기원 형식을 '-을 걸을'로 보았다.

'-을걸$_1$'은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거나 '불확실한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 '-을걸$_1$'이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미는 기타 추측 표현과의 변별적인 의미가 된다. '-을걸$_1$'은 상향 억양으로 발음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인데, 낮았다 평탄하게 유지되면서 '경고'의 화용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봤자 ~걸'의 문형에서는 하양억양으로 발화되어 '뻔한 사실에 대한 한탄'을 나타내기도 한다.

후회 의미의 '-을걸$_2$'는 기본적으로 동사와만 결합하고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솔직하다, 냉정하다'와 같은 몇 몇 화자가 통제 가능한 심리 형용사와 결합 가능하다.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을 뜻하므로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후회'의 의미를 갖는 '-을걸$_2$'는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었-'과 통합할 수 없다. '-을걸$_2$'의 부정문은 '-지 말' 부정문이 가장 흔하며, '못' 부정문은 쓰이지 않는다. '안' 부정문의 경우 단형 부정문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말뭉치에서도 추출되었지만 장형 부정문의 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극소수의 예문을 필자가 장형 부정으로 고쳐서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있었다. '-을걸$_2$'는 '-을 것을'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뒤에 무엇인가가 생략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그랬다, 그랬네, 그랬나, 그랬나보다, 그랬죠' 등과 같은 표현이 뒤따르는 일이 흔하다. '-을걸$_2$'는 직접 '요'와 결합할 수 없고 후행하는 '그랬다, 그랬네' 뒤에 '요'가 결합할 수 있다.

전형적인 '후회'는 과거 상황이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을걸$_2$'는 과거에 화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 따른 '후회'를 나타낸다. '후회'의 의미 특성상 '-을걸$_2$'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어야 할 것이나 주어가 2인칭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을걸$_2$'가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그랬다, 그랬죠' 등을 동반해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필자는 화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 대신 '후회'를 하면서 그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을걸$_2$'는 후행하는 '그랬다, 그랬어, 그랬네, 그랬나?, 그랬지?, 그랬죠?' 등의 영향을 받아 '후회'의 강도가 달라진다.

'-을걸$_3$'은 아직 문법화 과정에 있으며 종결어미로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을걸$_3$'의 기본 억양이 '-을걸$_1$' 및 '-을걸$_2$'와는 다르고, '타박'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을걸$_1$' 및 '-을걸$_2$'와는 구별하여 '-을걸$_3$'으로 보았다. '-을걸$_3$'은 많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었-'과 결합할 수 없으며 부정문을 가지지 않으며 '요'와도 결합할 수 없다. '-을걸$_3$'은 조건절에 많이 쓰이며 주어는 항상 2·3인칭이고, '-을 것을'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뒤에 무엇인가 생략된 느낌을 주고, 실제로 '가지고, 가지고 그러네'와 같은 표현이 뒤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5장에서 우리는 반사실적 가정 구문의 귀결절에 쓰이는 '-을걸'이 '-을걸$_1$'과 '-을걸$_2$'가 혼재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었-'과의 통합가능성임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을걸$_1$', '-을걸$_2$' 및 '-을걸$_3$'의 문법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을걸$_1$', '-을걸$_2$'와 '-을걸$_3$'의 문법 특성

			'-을걸$_1$'	'-을걸$_2$'	'-을걸$_3$'
선행 용언	동사		○	○	○
	형용사		○	△	×
	'이다'		○	×	×
시제	과거		○	○	○
	현재		○	×	○
	미래		○	×	×
	'-었-'과 공기		○	×	×
부정 유형	'안' 부정문	장형	○	△	×
		단형	○	○	×
	'못' 부정문	장형	○	×	×
		단형	○	×	
	'-지 말-' 부정문		○	○	×
높임	'요'와의 통합		○	직접 통합 不可 '그랬어' 뒤에 통합 가능	×
주어 인칭 제약	1인칭		○	○	△
	2인칭		○	△	○
	3인칭		○	△	○
복원	'-을 것을'로 복원		×	○	○

○: 가능 ×: 불가 △: 예외현상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을걸$_1$'과 기타 추측 표현과의 차이점, '-을걸$_2$'와 기타 후회 표현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어 추측 표현에는 '-겠-', '-을 것이-', '-을 성싶-', '-을 모양이-', '-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것 같-' 등이 있고, 후회 표현에는 '-었더라면 ... -었을텐데', '-었어야 하는데' 등이 있다. 또한 '-을걸'이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갖는 것과 동일하게 '-텐데'도 '추측'과 '후회'의 의미를 갖는다[13]. 따라서 추측 표현간의 비교 연구, 후회 표현간의 비교 연구 및 '-을걸'과 '-을텐데'의 비교 연구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13) '-텐데'는 '-었다면 -었을텐데'의 반사실적 가정 구문에서만 '후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고창운(1996), ≪서술씨끝의 문법과 의미≫, 박이정.

강소영(2001a),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소영(2001b), 양태표지 '-ㄹ 터이-'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강소영(2004),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연구≫, 한국문화사.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과 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8a), '-을걸'의 특성과 후회표현의 양상,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8b), 어휘접근적 문법교수를 위한 표현문형의 화행기능 분석-'-어야 하다/되다'를 사례로-. ≪한국어의미학≫ 26-1, 한국어의미학회.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출판부.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고창운(1991), '-겠-'과 '-ㄹ 것이-'의 용법, ≪건국어문학≫ 15·16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구현정(1989), 조건과 주제, ≪언어≫ 14, 언어학회.

권영은(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후회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재일(1986a),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국어학회.

권재일(1986b), 의존구문의 역사성, ≪말≫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권재일(1996), 문법 형태소의 소멸과 생성,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권재일(2003), 구어 한국어에서 서술문 실현방법의 공시태와 통시태,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명희(1996), 문법화의 틀에서 보는 보조동사구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문웅(1979), 불완전명사의 어미화, ≪국어교육논지≫, 대구교육대학교.
김서형(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 연구,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성규(2000), ‘이다’의 음운론적 특성,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국어학회.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 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김태엽(1990), 의존명사 ‘것’의 문법화와 문법 변화, ≪대구어문논총≫ 8, 대구어문학회.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33, 어문연구학회.
남미정(2007),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노지니(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의 통어적 문법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1998), 한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03),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41, 국어학회.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56, 태학사.
박재연(2009a),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조건·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 의미학회.
박재연(2009b),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박지숙·양윤(2007), 의사결정 상황에서 행동과 비행동에 따라 경험하는 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회,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8,
서정수(1978), 'ㄹ것'에 대하여, ≪국어학≫ 6, 국어학회.
성미선(2009), 한국어 추측표현의 완곡어법 양상과 교육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문준(1985), 현대 국어 접속문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송재목(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안효팔(1993), 허사화의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창돈(1962), 허사화 고구, ≪인문과학≫ 7,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유현경(2003), 접속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한글학회.
윤지원(2004), 한국어 조건문 유형에 따른 의미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한신문화사.
윤평현(1997), 국어 접속어미에 의한 가정 표현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19, 국어국문학연구학회.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이기용(1978), 언어와 추정, ≪국어학≫ 6, 국어학회.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윤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표현연구-'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은(2005),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태영(1993),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실문화사.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국어학회.
이효정(2004), 한국어교육을 위한 양태표현 연구, 상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자·이종희(1999),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도서출판 월인.
전영진(2002), 국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혜영(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 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국어학회.
정재영(1997), 명사의 문법화, ≪규장각≫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최동주(2008), 종결어미 '-ㄹ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 54, 국어학회.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한 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출판부.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허경행(2005),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동진(2006),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재영(1997), 우리말 문법화 연구의 흐름,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Hopper, Paul J.(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ed,* Traugott, Elizabeth & Heine, Bernd.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Kuryłowicz, Jerzy(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1975. Esquisses Linguistiques Ⅱ. Munich: Fink.
Meillet, Antoine.(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Rivista di Scienza)12.

기타: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http://sejong.or.kr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 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부록

영화 대본 목록:

...ing
10억
301 302
4인용식탁
7급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리철진
강력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살인사건의 전말
김씨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아름다운 일주
일
내여자친구를소개합니다
너는 내운명
넘버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연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헌법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리베라메
마더mother
마들렌
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파더
마지막늑대
말아톤
말죽거리잔혹사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꿈
멋진하루
목포는 항구다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옆 동물원
미스터 소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좋은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가출사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 후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첫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셀러
복수는 나의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선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비밀애
비스티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윈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 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는 여자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여자를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프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연인
어린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앰
여고괴담 5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여배우들
여자,정혜
역도산
연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어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르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홍련
전설의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구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 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란
펀치 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츠를 위하여
홀리데이
홍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드라마 대본 목록:

1%의 어떤 것 1회~26회
2008 전설의 고향 1회~8회
2009 외인구단 1회~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4회~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회~11회
9회말 2아웃 1회~16회
가문의 영광 1회~50회
가시나무새 1회~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회~18회
강적들 1회~16회
개와 늑대의시간 1회~16회
개인의 취향 1회~16회
거짓말 1회~20회
거침없는 사랑 1회~19회
거침없이 하이킥(2006-2007) 1회~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회~16회
검사 프린세스 1회~16회
겨울연가 1회~20회
결혼 못하는 남자 1회~16회
결혼하고싶은여자 1회~18회
결혼해주세요 1회~2회
경성스캔들 1회~16회
고독 1회~20회
고맙습니다 1회~16회
고스트 1회~16회
공부의신 1회~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회~16회
구미호외전 1회~16회
국희 1회~20회
굿바이 솔로 1회~16회
궁 1회~24회
귀여운 여인 1회~10회, 13회~16회
그 여자 1회~20회
그대, 웃어요 1회~45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대 그리고 나 1회~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회~16회
그린로즈 1회~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회~16회
글로리아 1회~12회
기적 1회~4회
김가이가 1회~24회
김치·치즈·스마일(2007-2008) 1회~121회
꼭지 1회~24회
꼭지 25회~50회
꽃보다 아름다워 1회~30회
꽃보다 남자 1회~20회
나쁜 남자 1회~18회
남자이야기 1회~20회
낭랑 18세 1회~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회~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7회~26회
내 여자 1회~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회~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1회
내 인생의 꽁깍지 1회~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회~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회~5회
내남자의여자 1회~14회
내마음이 들리니 1회~16회
내사랑내곁에 1회~4회
내사랑못난이 1회~20회
내사랑팥쥐 1회~10회
내생애마지막스캔들 1회~16회
내조의 여왕 1회~20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회~16회
네 멋대로 해라 1~20회
노란손수건 1회~132회
눈꽃 1회~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회~16회
눈사람 1회~17회
눈의 여왕 1회~16회
뉴하트 1회~23회
닥터 깽 1회~16회
닥터챔프 1회~16회
단팥빵 1회~26회
달자의봄 1회~22회
달콤한나의도시 1회~16회
달콤한인생 1회~19회
달팽이 1회~16회
대물 1회~24회
대한민국변호사 1회~16회
돌아와요 순애씨 1회~16회
두번째 프로포즈 1회~16회
드림 1회~20회
떼루아 1회~8회
라이벌 1회~20회
러브레터 1회~16회
러브스토리 1회~16회
러빙유 1회~12회
로망스 1회~16회
로맨스 헌터 1회~16회
로열패밀리 1회~18회
마당 깊은 집 1회~8회
마왕 1회~20회
마이 프린세스 1회~6회
마이걸 1회~2회
마이더스 1회~3회
맛있는 청혼 1회~16회
맨땅에 헤딩 1회~40회
메리대구 공방전 1회~16회
명가 1회~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회~16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모래시계 1회~24회
못된 사랑 1회~20회
몽땅 내사랑 1회~103회
미남이시네요 1회~16회
미스 리플리 1회
미스터 굿바이 1회~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회~16회
민들레가족 1회~16회
바보 같은사랑 1회~20회
반달곰 내 사랑 1회~16회
반짝반짝 빛나는 03회
반짝반짝 빛나는 04회
반짝반짝 빛나는 11회-13회
반짝반짝 빛나는 14회
반짝반짝 빛나는 15회
반짝반짝 빛나는 16-22회
반짝반짝 빛나는 1회~40회
발리에서 생긴일 20부
밤이면 밤마다 1회~17회
백설공주 1회~16회
베토벤바이러스 1회~18회
변호사들 1회~16회
별난여자 별난남자 1회~170회
별순검 시즌2 1회~20회
별은 내가슴에 1회~16회
별을 따다줘 1회~20회
보고 또 보고 1회~273회
봄의 왈츠 1회~20회
부자의 탄생 10회~11회
부활 1회~24회
불꽃 1회~20회
불꽃놀이 1회~17회
불새 1회~26회
불한당 1회~16회
비단향꽃무 1회~20회
비밀 1회~18회
비밀남녀 1회~20회
비밀의교정 1회~24회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1회~12회
사랑한다 말해줘 1회~15회
사랑해 당신을 1회~16회
사랑해,울지마 16회~45회
산부인과 1회~16회
살맛납니다 11회~20회, 100회~101회
상도 1회~50회
상두야학교가자 1회~16회
성균관스캔들 1회
성균관스캔들2회~5부
세상 끝까지 1회~16회
소문난 칠공주 1회~80회
소울메이트 1회~12회
솔약국집 아들들 1회~54회
수상한 삼형제 1회~64회
수호천사 1회~16회
순수 1회~16회
순풍산부인과 496회
스타의 연인 1회~20회
스타일 1회~16회
승부사 1회~24회
시크릿가든 1회~2회
시티홀 1회~3회
식객 1회
신데렐라맨 1회~16회
신데렐라언니 1회~18회
신의저울 1회~16회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1회~8회
싸인 1회~20회
썸데이 1회~3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아가씨를 부탁해 1회~2회
아름다운 날들 1회~24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회~48회
아빠셋 엄마하나 1회~16회
아이리스 1회~8회
아이싱 1회~16회
아일랜드 1회~16회
아직도 결혼하고싶은 여자 1회~7회
안녕 내사랑 1회~16회
안녕하세요 하느님 1회~16회
알게될거야 1회~19회
애정의 조건 1회~12회, 14회~39회, 41회-60회
어느 멋진 날 1회~16회
얼렁뚱땅 흥신소 1회~16회
얼마나 좋길래 1회~125회
에덴의 동쪽 1회~56회
에어시티 1회~16회
여름향기 1회~7회
여우야 뭐하니 1회~16회
역전의 여왕 1회~2회
연애결혼 1회~16회
연애시대 1회~16회
연인 1회~20회
열아홉순정 1회~30회, 32회~167회
열혈장사꾼 1회~20회
오! 마이 레이디 1회~17회
오! 필승 봉순영 1회~16회
옥션하우스 1회~4회
옥탑방고양이 1회~16회
온달 왕자들 1회~63회, 65회~130회, 148회, 170회
온에어 1회~21회
올드 미스 다이어리 1회~232회
올인 1회~24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회~16회
욕망의 불꽃 1회~50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회~44회
우리 집 1회~20회
우리 집 여자들 1회~24회
웃어라 동해야 1회~155회
워킹맘 1회~16회
원더풀 라이프 1회~16회
웨딩 1회~18회
웨딩드레스 1회~22회
위기일발풍년빌라 1회~6회
은사시나무 1회~3회
이 죽일놈의 사랑 1회~16회
이네 자매 이야기 1회~20회
이브의 모든 것 1회~20회
이웃집 웬수 1회~10회
인생은 아름다워 1회~15회
인생화보 1회~201회
인순이는 예쁘다 1회~16회
인연 만들기 1회~14회
자명고 1회~21회, 23회~39회
장난스런 키스 1회~16회
장밋빛 인생 1회~24부
전설의고향 - 씨받이
제중원 1회~17회
종합병원2 1회~6회
좋은 사람 1회~16회
줄리엣의 남자 1회~17회
즐거운 나의 집 1회~2회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1회~53회, 99회~125회
진실 1회~16회
짝패 1회~3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쩐의 전쟁 1회~16회
찬란한 유산 1회~28회
천국의 계단 1회~20회
천만번 사랑해 18회~25회
청춘의 덫 1회~24회
초대 1회~18회
최강! 울엄마 1회~18회
최고의 사랑 1회~2회
카이스트 6회~67회
카인과 아벨 1회~20회
칼잡이 오수정 1회~16회
커피프린스1호점 1회~17회
커피하우스 1회~8회
케세라세라 1회~17회
코끼리(2008) 1회~124회
쾌걸춘향 1회~17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회~16회
타짜 1회~20회
탐나는도다 1회~15회
태양을 삼켜라 1회~25회
태양의 여자 1회~20회
토마토 1회~16회
트리플 1회~16회
파라다이스 목장 1회~16회, 31회
파리의 연인 1회~20회
파스타 1회~20회
포도밭 그 사나이 1회~16회
푸른 안개 1회~20회
풀하우스 1회~16회
프라하의 연인 1회~5회, 9회~17회
프로포즈 1회~14회
피아노 1회~16회
하얀거탑 1회~20회
학교1 1회~16회
학교2 1회~42회
한성별곡 1회~8회
햇빛속으로 1회~16회
행복한 여자 1회~58회
헬로!애기씨 1회~16회
형수님은 열아홉 1회~19회
호텔리어 1회~20회
혼 1회~5회
화려한 시절 1회~50회
환상의 커플 1회~16회
황금마차 1회~196회
황금사과 1회~30회
황금신부 1회, 10회~22회
히트 1회~20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中文摘要

關于口語詞尾'-을걸'的硏究

李 敏

本文主要考察了口語詞尾‘-을걸’的語法特征和話用特征。‘-을걸’可細分爲三种。表‘推測’的‘-을걸$_1$’，表‘后悔’的‘-을걸$_2$’和表‘指責’的‘-을걸$_3$’。本文共分爲以下6个章節。

第一章主要陳述硏究目的，對象，方法以及之前學者的硏究成果。

第二章主要考察了‘-을걸$_1$’的語法特征和話用特征。根据近代韓國語的資料，將‘-을걸$_1$’的起源看成是‘-을것을’。‘-을걸$_1$’与謂詞的結合上沒有限制。在主語的人称和否定句的形式上也都沒有限制。‘-을걸$_1$’最基本的意思爲‘推測’。在一些句中表示‘對未确定事情的估計和推測’，‘推測的內容是對方所不知道或者不期待發生的事情’。這兩种意思雖不是‘-을걸$_1$’最根本的含義，但它是与其他表‘推測’詞尾的辨別之意。

第三章主要考察了‘-을걸$_2$’的語法特征和話用特征。‘-을걸$_2$’基本只能与動詞結合。但能与几个表示話者所能控制的心理形容詞結合。‘-을걸$_2$’表‘對沒有做更好選擇而后悔’。‘后悔’的前提是事情已經發生了，所以‘-을걸$_2$’不能与‘-었-’結合。‘-을걸$_2$’的‘-지 말’否定句最自然，其次是‘안’否定句的短否定句。‘-을걸$_2$’不用‘안’否定句的長否定句和‘못’否定句。‘-을걸$_2$’表示‘后悔’，所以主語一般是第一人称。但也有用第二人称的情況。本文將此類情況看成是話者站在對方的立場上表示‘后悔’，從而達到對對方境遇惋惜的話用效果。

第四章首先簡單的考察了語法化的基本概念。之后對‘-을걸$_3$’的語法特征進行了考察。‘-을걸$_3$’還沒有完全語法化，所以在很多方面有所限制。比如不能与‘-었-’結合，不能与‘요’結合，幷且很少有否定句。盡管‘-을걸$_3$’還沒有完全語法化，但是它与‘-을걸$_1$’和‘-을걸$_2$’在語調和語法特征上有很大的區別，幷且有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指責’的意思。所以盡管‘-을걸$_3$’還沒有完全成爲詞尾，本文還是將它看成‘-을걸’的一种。

第五章主要探討了反事實條件文中的‘-을걸’。并通過語料庫例句的考察，指出‘-을걸$_1$’和‘-을걸$_2$’都可出現在反事實條件文中。反事實條件文中用的是‘-을걸$_1$’還是‘-을걸$_2$’，則可通過能不能与‘-었-’結合作出判斷。

第六章總結整理了本文的論点，并指出本文的不足。

關鍵詞: ‘-을걸’, 口語, 詞尾, 后悔, 推測, 指責.
學　号：2009-23813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